

# 수원시 여성 사회참여 지표 기초 연구

Preliminary Study on Women Social Participation Indicators  
about Suwon City

이영안 Lee, Young An

##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위원(현)

yalee@suwon.re.kr

##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 | 연혁 |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수원시 출연 재단법인으로  
2013년 3월 28일 설립

### | 설립목적 |

연구원은 수원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원시 여성 사회참여 지표 기초 연구

Preliminary Study on Women Social Participation Indicators about Suwon City

2014

---

## 연구진

연구책임

● 이영안 /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원

● 김정환 /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 약

민선 6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기간에만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의 민주성 확보가 공약으로만 제시되는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이다. 성평등 수준이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각 영역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역사회에 있어서 문제해결의 단초라고 인식하고, 인구 120만(외국인 인구 포함)의 거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 성공이 구체적 행정구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자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참여가 전제되었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유사한 맥락에서 여성의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첫째, 사회참여의 개념, 매커니즘과 참여활동, 사회참여의 분류를 통해 사회참여의 의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참여의 개념과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매커니즘, 사회참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를 설명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지역사회참여의 개념, 효과, 주요 형태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사회참여 배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면서 경제, 정치, 사회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여성정책의 주요 관점을 비교분석하면서 양성평등을 목표로 지표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가 가지는 의미를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회참여에 있어 대상이 되는 ‘사회’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원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시정현황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해 수원시가 상대적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낮지만, 고령인구에서는 여성의 인구비중이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수원시 사회참여와 여성을 키워드로 하는 주요 조례와 2013년 주요 사업 및 2014년 사업계획, 그리고 민선 6기 약속사업 검토서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조례 등에서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가 자주 지적되었으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참여의 주체로 보는 것 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수원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관계된 지표를 분석한 결과 통계생산과 관리가 모두 미비한 상태로 파악되었으며,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지표개발을 원활하기 위해 선행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사례는 중앙정부의 국가성평등지표를 검토하였으며, 지역사회 여성관련 지표개발 동향, 성별분리 통계 등을 검토하였다. 지방정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전광역시의 지표개발 사례를 참고하였다. 해외 지표개발 사례는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별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참여에 대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성별분리통계, 생애주기별 통계관리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여성 사회참여의 지표를 개발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을 검토하였다는 것이다. 즉 지표개발에 있어 지표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지표개발 및 운용의 목적으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정리함으로써 지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표개발을 설계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역할 고려, 성별 분리통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참여의 주체로서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 지역사회 환경 및 제도의 중요성, 상호호혜성에 기초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표개발 및 운용 방안에 대한 개략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지표개발에 있어 분야를 인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5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예비지표를 제언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후속연구계획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적실한 지표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 목 차

<b>제1장 서론</b> .....	<b>3</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8
<b>제2장 이론적 검토</b> .....	<b>13</b>
제1절 사회참여 논의 .....	13
1. 사회참여의 개념 .....	13
2. 사회참여의 매커니즘과 참여활동 .....	15
3. 사회참여의 분류 .....	16
제2절 지역사회참여의 의의 .....	19
1. 지역사회참여의 개념 .....	19
2. 지역사회참여의 효과 .....	20
3. 지역사회참여의 주요 형태 .....	21
제3절 여성의 사회참여 논의 .....	23
1. 여성의 사회참여 배경 .....	23
2. 여성 사회참여에 대한 주요 관점 .....	25
제4절 소결 .....	27
<b>제3장 수원시 현황 분석</b> .....	<b>31</b>
제1절 일반현황 및 인구구성 분석 .....	31
1. 시정현황 분석 .....	31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	34



제2절 주요 조례 및 사업 분석 .....	47
1. 수원시 여성관련 주요 조례 분석 .....	47
2. 수원시 여성 및 사회참여 주요 사업 분석 .....	53
제3절 주요 지표 분석 .....	61
1. 정치분야 주요 지표 검토 .....	61
2. 경제분야 주요 지표 검토 .....	65
3. 사회분야 주요 지표 검토 .....	68
제4절 소결 .....	70
<b>제4장 지표개발 사례분석 .....</b>	<b>75</b>
제1절 국내 지표개발 사례분석 .....	75
1. 중앙정부 주요 지표개발 사례 .....	75
2. 지방정부 주요 지표개발 사례 .....	78
3. 주요 지표개발 동향 시사점 .....	84
제2절 해외 지표개발 사례분석 .....	86
1. 주요 국제 기구 .....	86
2. 주요 선진국 사례 .....	92
<b>제5장 지표개발 주요 제언 .....</b>	<b>101</b>
제1절 지표개발의 전제조건 .....	101
1. 사회참여 지표의 성격 규정과 목표 .....	101
2.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개발 설계 기준 .....	104
제2절 여성 사회참여 지표개발 분야 제언 .....	107
1. 인구영역 .....	107
2. 정치영역 .....	108

3. 경제영역 .....	110
4. 사회영역 .....	111
5. 문화영역 .....	112
<b>제6장 결론 .....</b>	<b>117</b>
제1절 정책적 시사점 .....	11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	118
<b>참고문헌 .....</b>	<b>121</b>
<b>영문요약(Abstract) .....</b>	<b>129</b>

# 표 목 차

<표 3-1> 수원시 소속기관 및 직급별 공무원 현황(2014년) .....	33
<표 3-2> 행정단위별 인구 구성 현황 .....	35
<표 3-3> 수원시 연차별 세대 및 인구구성 .....	37
<표 3-4> 행정구역별 인구동태 현황 .....	39
<표 3-5> 행정구역별 전출입 인구 현황 .....	41
<표 3-6> 행정구역별 연령대 인구구성(2013년) .....	42
<표 3-7> 수원시 연령대별 인구구성과 구성비율 성차(2013년) .....	45
<표 3-8> 행정구역별 교육수준별 여성비율 .....	46
<표 3-9>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분석 ·	49
<표 3-10>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분석 ·	51
<표 3-11>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 분석 ·	52
<표 3-12>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분석 ·	53
<표 3-13> 2013년 수원시 사회참여 분야 주요 사업 성과 .....	54
<표 3-14> 2013년 수원시 여성대상 주요 사업 성과 .....	56
<표 3-15> 부서별 주요 공약목록 및 추진방향 .....	57
<표 3-16> 2014년 수원시 사회참여 주요 사업 계획 .....	58
<표 3-17> 2014년 수원시 여성대상 주요 사업 계획 .....	59
<표 3-18> 선거구별 성별 국회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	62
<표 3-19> 수원시 회차별 시군구의회 여성의원 현황 .....	62
<표 3-20> 수원시 연차별 공무원 현황 .....	63
<표 3-21> 수원시 주요부서 공무원 성별 현황 .....	64
<표 3-22> 수원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현황 .....	65
<표 3-23>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	66
<표 3-24> 행정구역별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	67
<표 3-25> 행정구역별 성별 취업자 현황 .....	68

<표 3-26> 행정구역별 성별 자원봉사자 현황 .....	69
<표 4-1> 중앙행정기관의 성별분리통계집 발간 현황 .....	78
<표 4-2>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지표 .....	80
<표 4-3> 대전여성사회지표 .....	82
<표 4-4> The world's Women 2000: Trends and Statistics의 관심영역 ..	87
<표 4-5> The life of Women and man in Europe의 분류형태 .....	89
<표 4-6> 뉴질랜드 여성 지위 변화 지표 .....	94
<표 4-7> 양성평등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단계별 주요 내용 .....	95
<표 5-1> 사회지표의 기능 .....	103
<표 5-2> 여성지위지표와 양성평등지표 비교 .....	105
<표 5-3> 인구영역 예비지표 제언 .....	108
<표 5-4> 정치영역 예비지표 제언 .....	109
<표 5-5> 경제영역 예비지표 제언 .....	111
<표 5-6> 사회영역 예비지표 제언 .....	112
<표 5-7> 문화영역 예비지표 제언 .....	113

# 그림 목 차

<그림 1-1> 국가성평등지수의 수준과 추이 .....	4
<그림 1-2> 부문별 우리나라 성평등수준 .....	5
<그림 2-1> 여성 사회참여의 역사적 전개 .....	24
<그림 3-1> 수원시 여성정책과 조직구성 및 주요 담당 업무 .....	34
<그림 3-2> 행정구역별 연차별 성차지수 및 인구증감율(2009~2013년) ·	36
<그림 3-3> 수원시 1998~2013년 성별 인구구성 및 세대(가구) 현황 ·	38
<그림 3-4> 행정구역별 인구동태 현황(2009~2013년) .....	40
<그림 3-5> 수원시 기준 전국 및 경기도의 연령대별 비율 비교 ...	43
<그림 3-6> 수원시 연령대별 인구구성 .....	44
<그림 4-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사회참여 지표 체계 개념도 .....	79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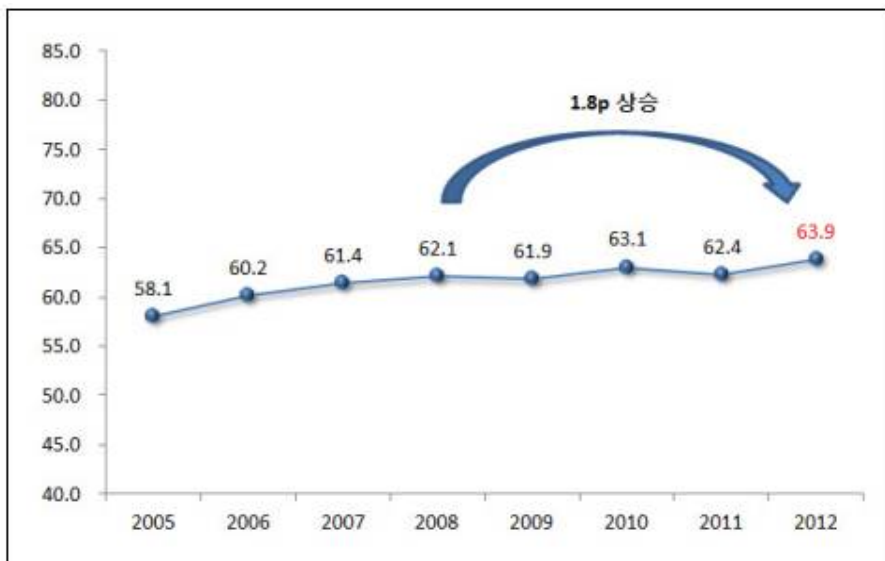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한 이유를 ‘참여’라고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법치제도와 자치의 습관 가운데 녹아져 있는 ‘참여’이다. 그는 미국식 법치제도에서의 참여에 대하여 중앙정치와 지방자치의 절묘한 조합을 토대로 주 정부(state government) 마다의 특징을 인정하면서도 일정수준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전통적으로 타운십 미팅(town ship meeting)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던 습관이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녹아져 있으며, 이는 영국이 엘리트 중심의 문제해결에 익숙한 것에 반해 미국은 개척자(frontier) 정신에 기초하여 공공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결사체에 익숙하다는 차이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즉 미국은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습관화되어 있는 역사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으며, 계몽된 자기이해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참여가 자기 이해관계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크빌의 지적과 같이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시작하면서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의 민주성 확보는 공약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역사회의 참여가 정책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 분석한 ‘주요 남녀평등지수에 나타난 한국여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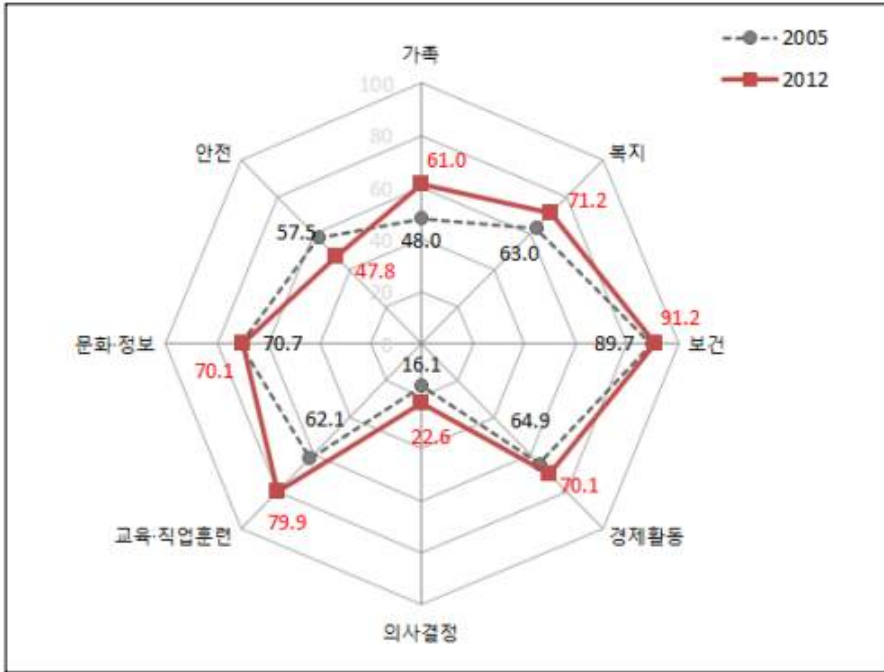
지위'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개발된 한국형 성평등지수를 기준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재선 외(2013)은 「2013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를 통해 국가성평등지수의 추이를 <그림 1-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추정하건데 2005년 이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점차 평등한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 주재선 외(2013: 27)

<그림 1-1> 국가성평등지수의 수준과 추이

부문별 성평등지수의 변화정도는 <그림 1-2>와 같다. 살펴보건데 의사결정과 안전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보건과 교육·직업훈련 등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05년을 기준으로 2012년의 성평등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교육·직업훈련 등과 같은 인력개발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부문은 성평등 수준의 확보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주재선 외(2013: 28)

〈그림 1-2〉 부문별 우리나라 성평등수준

의사결정부문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당 부문의 측정지표가 가지는 성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의사결정부문의 측정분야로서 국회의원의 여성비율, 정부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현황,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 등이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추정하건데 여성에 대한 교육·직업훈련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면서 경제활동 등에 대한 부문은 소폭이지만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사회 또는 정치분야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기준으로 하는 성평등 수준의 개선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은 성평등 수준에 대한 분석이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재선 외(2013)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의 효과와 성평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목적으로 매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연구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 취약 영역을 파악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여성정책 수립과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며, 지역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토크빌이 지적한 것과 같이 참여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성평등 지수에서 나타나듯 사회의 각 분야 즉 정치, 정부, 기업(시장)에서 여성의 참여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여성의 사회참여는 무엇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민선 6기가 시작된 지방자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제도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실시된' 것(이선향, 2005: 118)으로 폄하되는 것은 정책이나 제도가 여전히 중앙정부의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지방자치에 대하여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중앙정치에 대한 지나친 예속, 지방재정의 취약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치의식의 부족, 즉 참여인식에 대한 부족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주삼식, 2000: 130).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문제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치의 의미가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지역 선거정치의 수준으로 위축된 것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부족을 원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이선향, 2005: 120). 이러한 지방자치의 수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양성평등의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욕구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에 관한 기초통계 등과 같은 현황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기숙·박해숙, 2007: 55).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특히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정책의 성공적인 정착,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시작하는 양성평등 수준의 개선을 위해 여성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의 시작으로 보고자 한다. 다만 선행연구의 부족과 장기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2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여성의 사회참여를 논의하고, 이를 지표화하고자 기초토대 설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다만 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들을 하나의 방향이나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척도이며, 단순한 측정이 아닌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CIDA, 1997: 5). 따라서 본 연구는 지표개발을 위한 토대를 쌓는 것을 내용범위로 하며 구체적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 특정한 상황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그리고 조건과 사회참여의 주요 행위자로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수원시 여성에 대한 현황을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수원시의 일반현황, 인구구성, 주요 제도, 여성과 관련되어 개발된 주요 지표 등의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지표개발에 있어 유용한 틀을 설계하기 위해 국내·외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주요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동향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개발을 위한 주요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이론적 검토단계에서는 주제에 해당하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여성의 사회참여가 가지는 의미를 논의하고 지표개발에 있어 전제해야 할 논의점을 고찰할 것이다. 특히 개념적으로 인과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는 양성평등과 사회참여에 대한 계층적 개념의 등위를 구조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수원시 현황 및 제도분석에서는 통계청과 수원시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수원시의 일반현황, 인구구성, 현재 수원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참여와 여성을 키워드로 하

는 주요 정책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수원시 인구구성의 경우 수원시 여성인구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여 분석할 것이며, 전국, 경기도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공약사업, 2013년 부서별 시행사업, 2014년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수원시 정책에 녹아져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지표개발 사례분석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지표개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별 비교분석법을 토대로 기초자치단체라는 수원시 특성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표 개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장

## 이론적 검토

- 제1절 사회참여 논의
- 제2절 지역사회참여의 의의
- 제3절 여성의 사회참여 논의
- 제4절 소결



## 제2장 이론적 검토

### 제1절 사회참여 논의

#### 1. 사회참여의 개념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는 1960년대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이 확대된 이후 시민참여, 정치적 형평, 신뢰, 다양한 견해와 인종에 대한 관용, 시민조직과 연합의 성장 등과 같은 가치들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Putnam, 1993). 이러한 사회참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여의 개념은 학문적 성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학의 경우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과 선거에서 유권자로서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학은 경제활동에서의 혜택(benefit)의 측면에서, 행정학의 경우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개입에 중점을 둔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심리학은 참여를 ‘관여(involve)’ 또는 ‘영향(influence)’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윤경아·남미애, 2003: 3-4). 하지만 학문분야별로 참여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각 학문분야에서 초점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참여’는 사회심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참여에 대한 분야로서 ‘사회’는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다 구체적인 사회참여의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토크빌의 지적이 중요

한 계기가 되었다. Gillespie & Lazarus(1976)는 사회참여를 정치적 의사결정을 넘어서 시민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직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을 제시하였다. 반면 Castenmiller(1989)는 사회참여를 정치적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정책개입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현섭(1999)은 사회참여를 시민이 자신과 공동체의 질적 발전을 목표로 의제설정과 토론생산 등과 같은 사회적 의사결정의 처음단계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대하여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고 공감의 확산과 압력 행사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시민적 의무를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정은(1994)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사회참여를 설명한다. 협의의 사회참여는 사회집단이 필요와 욕구를 나타내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활동으로 정의한다. 협의의 사회참여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활동(social activity) 또는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이 있다. 사회운동 또는 사회활동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일정수준의 지속성을 가지고 사회변동을 달성하거나 저해하려고 하거나 또는 기존의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집합적 노력을 뜻하기 때문이다(이금룡, 2002). 반면 광의의 사회참여는 지역사회 조직 및 단체활동과 취업활동을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참여는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면서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 그 정의와 측정방법에 있어서 연구자의 특성 및 의도, 선호에 따라 조작적으로 정의되거나 사회통합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신유리·김은경, 2011: 1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자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공통적으로 첫째, 공동체 또는 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 둘째, 개인과 조직활동을 포괄하며, 셋째, 취업활동 등과 같은 개인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공공부문의 활동을 지적하고 있으며,<sup>1)</sup> 마지막으로 개입

의 형태는 대체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2. 사회참여의 매커니즘과 참여활동

토크빌은 미국에서 지역사회에 사회참여가 정착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개척자(frontier) 정신을 통해 영국 시민지 시절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통합이 절실했다는 역사적 배경과 개인의 이해(interest)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재된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한 매커니즘은 Rowe & Kahn (1998)이 지적한 것과 같이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다른 요인으로 '생산적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 내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동기가 사회참여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참여가 일반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 놓인 개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사회참여를 선택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박병진, 2007).

이와 같이 사회참여의 매커니즘은 사회 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해관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하나의 활동이다. 하지만 사회봉사와 이타적 행위에 대한 사회참여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이해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만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봉사 등과 같은 이타적 사회참여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상호호혜에 기초한 관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확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취업활동 등과 같은 경제분야의 활동은 대체로 개인활동으로 인식한다. 그렇지만 취업을 위한 공공부문의 제도적 지원 등이 사회참여를 통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참여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사회참여에 대한 매커니즘은 참여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참여를 사회적 연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며(Glass & Berkman, 1999), 범위를 좁혀서 사회참여활동으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즉 사회참여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인식할 경우 사회참여 활동(social participation activity)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사회적 자아로서의 각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정은, 1994; Palmore, 1981).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참여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활동(activity)의 개념은 크게 일(work)과 여가(leisure)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은 의무적이고 시간제약적인 반면에 여가는 자유로운 시간의 활동으로서 임의적 성격을 가진다. 다만 일과 여가를 구분하는 것은 활동의 의무성과 임의성을 기준으로 하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며 상대적인 의미에서 구분될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참여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은 의무적이거나 또는 임의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무성이 부여된 투표활동과 자발적이 요구되는 사회봉사활동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이해관계를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 3. 사회참여의 분류

사회참여의 분류를 시도한 선행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주(1999)는 사회참여를 참여수준에 따라 구분을 시도하였다. 첫째, 광범위한 수준에서 여성이 시민으로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교육, 훈련, 고용, 정치생활 등과 같은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조직수준에서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정책,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여성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자문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셋째, 개인적 수준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관여되거나 정보를 얻게 되는 권리를 제시하였으며, 여성들이 가족생활이나 정부의 보호를 받는 경우 여성 서비스의 고객으로서 의사결정에 관여되거나 정보를 받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영태 외(2006)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논의하면서 참여수준, 기능, 참여분야 등을 기준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참여수준을 기준으로 공식적 참여, 준공식적 참여, 비공식적 참여로 나누고 있다. 공식참여는 시민사회, 지역사회 혹은 공공행동에 정식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전일제(Full-time)로 참여하는 것이다. 준공식 참여는 가족 이외의 조직체에 정식 성원으로서는 부분일제(Part-time)의 신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공식 참여는 조직체의 정식 구성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둘째,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참여활동은 지불되는 노동의 대가를 통해 생계유지 수단이 되거나,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전체사회의 운영 방향과 내용에 관여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를 확인하거나,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사회관계를 통해 사회인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박정은(1994)이 제시한 사회참여의 의미, 즉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확인과 사회적 자아로서의 각성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사회참여는 참여 분야에 따라 정치부문, 경제부문, 자원 및 활동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참여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배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택하고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서로 분담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시민이 정부관리를 선출하거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취하는 합법적인 행동을 말한다(Verba & Nie, 1972: 2). 이러한 참여의 개념 속에는 정치과정에 자기의 의사를 정치적 결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행동과 구성원의 자발

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투표, 정부에 대한 진정, 청원, 소송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백경남, 1997: 145-146). 경제 분야는 생계유지 수단을 위한 자연스러운 참여를 의미하며 정치와는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기능적 측면에서의 사회참여가 생계유지를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원 및 활동 부문의 참여에는 대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해당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이전까지 자선 또는 구호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최근에는 산업의 다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역시 이에 포함되고 있다.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참여활동의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제시한 정치분야의 참여를 설명하고 있는 Verba & Nie(1972)의 네 가지 유형이 해당한다. 즉 투표참여, 선거운동, 공직자 접촉, 지역공동체 활동 등에 더하여 비관습적 참여로서 청원, 데모, 보이콧 등이 제시된다. 예컨대 Dalton(2008: 33-34)은 참여형태로 투표, 선거운동, 공직자 접촉, 지역공동체 활동에 더하여 항쟁과 인터넷 참여 두 가지를 더하였고, Roberts(2008: 237-241)는 시민의 직접참여 유형을 선거참여, 개인 참여, 소집단 참여, 대집단 참여로 구분한 바 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참여 부문, 참여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참여 곤란도), 타인과의 협력요구 정도, 갈등의 잠재성 등의 기준에 근거한 것이다(Verba 외, 1978). 주요 참여 유형은 투표참여, 선거운동, 공직자 접촉, 의사전달, 지역사회활동 및 항의 등으로 정리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제2절 지역사회참여의 의의

### 1. 지역사회참여의 개념

사회참여에 있어 ‘참여’에 대한 개념을 논의하였다면, 이제는 대상으로서 ‘사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수원시는 법정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20만이 넘는 거대 규모의 도시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역사회이며 따라서 국가단위의 사회참여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를 범위로 하는 사회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의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전술한 ‘참여’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지역사회참여를 설명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의 정책 및 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수행되는 주민과 지역사회조직의 제반활동이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주민, 지역사회조직, 정부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ahiri-Dutt, 2004:14; 강대선·류기형, 2007).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논의의 대상으로서 지역사회 참여의 주요 행위자는 주민, 지역사회조직, 정부기관이며 공공부문에서의 정책이 중요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지역’의 개념에 대하여 Maclver(1928: 3)는 공동생활의 영역(area of common life)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역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지역성과 지역사회의식 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공통적 전통과 관습 그리고 소속감 등과 지역사회의 주민의식, 역할의식, 의존의식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Rose(1967)는 지역사회의 의미에는 지역주민들의 협력적인 공동체이며, 지역사회의 연대의식(sense of community)이 함축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연대의식은 서로 돕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규범적이며

문화적인 요소로서 상호호혜성을 특징으로 한다. Lepofsky & Fraser(2003)과 Brzson & Mowbray(2005)은 상호호혜성의 형성 요인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책임감과 시민권적 도덕적 책임성, 그리고 지역사회 관습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참여’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참여가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타인과 의미 있는 집단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에게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집단적 효능감을 향상시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류기형(2004)이 지적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참여는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지역사회참여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 앞의 평등, 생활의 질 향상, 지역성 강조에 따른 이점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지역사회 분권화, 복지서비스 수혜 및 활동의 기회보장,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자기결정권과 민주주의 확대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복지 증진의 수단이자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듯 지역사회 참여는 주민들의 지식과 역량을 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 2. 지역사회참여의 효과

지역사회에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 참여유발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다양한 기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긍정적 기대효과로는 세부적으로 첫째, 한 명의 사람에게 평소 이루던 가족의 한 구성원이 아닌 타인들과 조직을 이루어 자신의 관계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또

한, 이 경험들은 개인들에게 자신감이나 효능감 혹은 분권화 증진 등과 같은 심리적 역량의 강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곽현근, 2007). 둘째, 지역사회에서는 참여하는 지역사회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과 계획의 결정과 집행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즉 정책 전반에 걸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 확보와 주민주체의 공동성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능감과 사회적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예: Ohmer & Beck, 2006; Siddiquee & Kagan, 2006; 유정숙, 2012). 셋째,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지역사회는 각각의 다른 특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적절한 참여를 통한 근본적 수준의 정책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선호도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면서 지역정책의 입안 및 결정에서도 주민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고 이것은 행정의 능률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참여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나 서비스 향상,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의 조건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예: Chavis & Wandersman, 1990).

### 3. 지역사회참여의 주요 형태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는 행동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에 기반하고, 강한 네트워크, 강한 지역사회연대감, 강한 지역사회성, 지역사회에 대한 믿음 및 자발적 활동과 참여 등 이른바 상호호혜성에 기반하여 증가한다(Dochery & Goodlad, 2000). 또한 실제 삶의 활동에서 잠재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때 사회참여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행사 참여, 직업적 역할 참여, 교회에 다니는 것, 시민사회조직 참여뿐만 아니라

친구와 어울리기, 이웃에게 자그마한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일대일 대면적 원조 등이 모두 지역사회 참여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이며, 특히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공간적,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공동체의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활동이 모두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Sirianni & Friedland, 2001).

# 제3절 여성의 사회참여 논의

## 1. 여성의 사회참여 배경

참여의 대상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누가’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은 여성이다. 특히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가 주제라고 한다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사회차별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여성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류발전의 동반자로서 인정받고 있다. 여성은 창조적 활동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자기개발 의욕, 창조적 에너지를 국가 발전과 인류 평화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부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는 생산성·생산방식과 사회관계, 사회 중심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였다. 수렵채취사회와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혁명을 계기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지식·정보화 사회에 이르러 더욱 본격화 될 수 있었다. 공공조직체와 사적조직체가 없었던 수렵채취사회와 농경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사회참여는 없었다. 가족이 생산 집단이자 소비 집단이었으며 토지를 기반으로 생산하다 보니 사회참여 역시 육체적인 생산성이 높은 남성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렵이나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사회에 이르러 여성의 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생산기반이 토지에서 노동력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본과 기술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기 시

작하였다. 이는 사회의 분화를 야기하였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인력수요가 요구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노동력 중심의 생산기반의 변화는 경제활동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남성의 노동력만으로 가정경제를 영위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 대한 변화를 일으켰으며,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보육과 양육 등의 역할이 전담에서 분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지식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보다 극대화되기 시작하였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으로 노동양식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태생적 성(sex)에 따른 차별이 산업사회에 비해 보다 완화되었으며,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 오히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보다 적합한 형태로 인식되면서 권력관계의 변화가 보다 적극적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따른 여성 사회참여의 전개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여성 사회참여의 역사적 전개

## 2. 여성 사회참여에 대한 주요 관점

여성의 역할변화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선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변화의 다양한 흐름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약진, 즉 경제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sup>2)</sup> 여성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투입된 결과, 출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 가전제품의 발달로 인한 가사노동시간의 절약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노동의 유형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사회에서도 세계적인 흐름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사회도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로써 여성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양성간의 차별적 문제에 대한 정책의 관심과 개선의 의지는 양성간의 사회적 세력화의 평준화를 꾀하여 국민 모두가 균등한 삶의 향수를 배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견지에서 정부차원의 노력이 대단히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사회에서의 양성의 상태가 어떤 특정 성이나 특정 집단에게 비교 우위로 집중되거나 편향되어 양성간의 차별이 심화된다면 양성간 혹은 집단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서로 반목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궁극적으로 양성간 자기역할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추이가 분명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여성이 사회적 세력화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양성간의 차별적 삶의 상태는 해결이 필요한 명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여성들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의 필연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

2) 물론 여성의 참여가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공(空)의 상태에서 시작된 여성의 참여가 현재 일정수준까지 향상된 것은 이전에 비해 두드러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지표개발 또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여성 사회참여에 대한 시각을 정리하건데 첫째, 여성 사회참여를 사회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또는 사회변동의 주체로서 보는 관점이다. 즉 여성이 본인 삶의 주체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율성을 가지는 독립된 존재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양성평등적 관점이다. 이전의 여성 사회참여 문제는 종교나 인종, 관습, 국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차별이론(difference theory)이 주류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 정체세력화뿐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 내기 어려웠다(윤경아·남미애, 2004: 5-6). 따라서 1985년 나이로비에서 진행된 UN 3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그간의 WID(Women In Development)전략의 한계를 인지하고 새롭게 GAD(Gender And Development)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성 불평등이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성의 상대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범준 외(1998)이 지적한 것과 같이 여성에 대한 개발과정에서 여성의 주도력과 잠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성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사회발전을 위한 자원 또는 사회변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것과 양성평등관점에서 사회통합 등을 위한 참여 독려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여성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양성간에 나타난 차별적인 삶의 상태가 민간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을 안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이러한 양성간의 차별적 삶의 상태가 인간존엄성에 호소되는 근본적인 문제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제4절 소결

여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 가운데 하나는 여성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역할에 대한 수행을 받아왔으며, 현대사회가 되면서 취업 등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역할에 대한 요구를 받는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의 사회참여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자녀에 대한 양육 등의 역할은 ‘아빠’ 보다는 ‘엄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여성은 다양한 역할 수행을 요구받는다라는 점에서 사회참여 또한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의미 또한 다양할 수 있다. 문옥표(1995: 131)는 일본여성의 사회참여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주부들의 주된 활동영역은 실질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지역(local)이며, 여기서 지역은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영역(domestic sphere)과 남성중심의 노동시장을 대표로 하는 공적영역(public sphere)의 중간영역이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정영역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성숙과 맞물려 판단하건데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공동성에 기초한 정체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보다 가시적 기대효과는 정책개입, 또는 적극적 정책참여를 통한 정책의 민주성과 효과성,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 등과 같은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때에도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가족 내에서 양육과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이나 조직과 사회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강대선·류기형, 2007).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일지라도 가정 내에서 요구되는 역할 때문에 남성에 비하여 직장생활 이후에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게 된다. 이로 인해 여성은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사회적 접촉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더불어 많은 시간을 지역에 할당함으로써 지역 내의 생활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문제점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게 된다(김지연, 2003). 또한, 여성들이 갖는 특유의 근면함, 섬세함, 성실함은 지역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토대로 여성의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사회의 활성화 유도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성차(gender gap) 측면에서 형평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여성의 경우, 양육이나 가사, 돌봄 등의 역할 수행 때문에 지역참여의 기회나 여력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Cheng 외, 2000). 더구나 가정 내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우리의 동양적 문화 속에서 여성의 지역사회참여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박정은(1994)이 지적한 것과 같이 사회참여는 본질적으로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각성이라고 한다면 문옥표(1995)가 지적한 것과 같이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정영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가 남성보다 많아야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역할 수행 때문에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가족이라는 작은 사적공간의 사회에서 벗어나 공적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적·제도적 측면의 논의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여성의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20만이 넘는 대규모 지역사회이다. 이러한 규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역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성의 적극적인 지역사회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을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지역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서론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현재 수원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표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련된 통계조차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제3장

# 수원시 현황 분석

제1절 일반현황 및 인구구성 분석

제2절 주요 조례 및 사업 분석

제3절 주요 지표 분석

제4절 소결



# 제3장 수원시 현황 분석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수원시 여성에 대한 현황을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수원시의 일반현황, 인구구성, 주요 제도, 여성과 관련되어 개발된 주요 지표 등의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 제1절 일반현황 및 인구구성 분석

### 1. 시정현황 분석

수원시 여성 사회참여 지표개발을 위해서는 수원시 여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표는 현재 처해진 사회나 체계에서 특정한 상황들에 대한 단순한 측정에 머물러있지 않으며, 지표를 토대로 평가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가치지향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Biderman, 1978; Bauere, 1996). 따라서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원시에 대한 분석을 우선하고자 한다.

수원시 통계(<http://stat.suwon.go.kr/stat/index.do>)에서 발표한 2014년 9월 기준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 인구는 약 117만(1,170,098명)이며 외국인 인구는 약 3만명(34,824명)으로 총 인구는 약 120만명(1,204,922명)이다. 이중 여성인구는 49.6%이며 약 58만명(580,589)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전국 및 경기도 대비 인구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토대로 2013년 인구를 분석한 결과 인구규모는 전국대비 2.1%, 경기도의 9.1%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다.

「2014 수원시 시정업무계획」을 참고로 살펴보면 수원은 상대적으로 인구규모에 비해 면적은 121.08km<sup>2</sup>(전국 대비 0.14%/ 경기도 대비 1.2%)로 작은 편이다. 다음으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285,515호(보급률 94.0%), 상수도 1,160,938명(보급률 99.9%), 하수도 1,147,955명(보급률 98.4%), 도로개설 : 889km(개설율 78.04%), 지하철(42.5km), 공원면적 16,352천m<sup>2</sup> 등이다.

다음으로 수원시내 주요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학교는 총 203개이다. 세부적으로 대학교 6개, 고등학교 41개, 중학교 56개, 초등학교 97개교 등이다. 복지시설은 총 368개(사회복지 20개, 여성 8개, 노인 236개, 장애인 37개, 아동 61개)이며, 도서관은 118개(공공 9개, 새마을문고 48개, 작은 도서관 61개)이다.

수원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120만이 넘는 인구가 좁은 면적에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형 기초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다. 행정구역은 4구 40동 1,465통 6,787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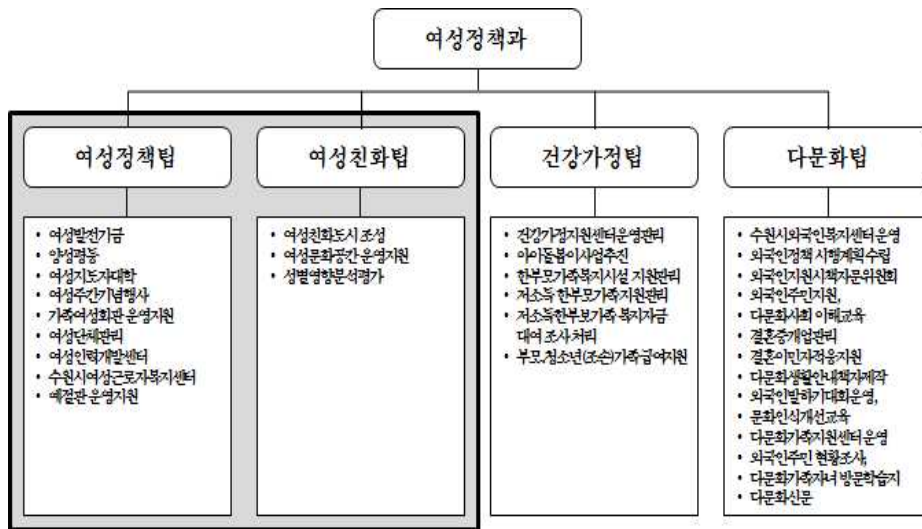
수원시의 행정조직은 1실 7국 5개 직속기관 10개 사업소 4구 5담당관 3단 5관 77과 40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수원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수원시 소속기관 및 직급별 공무원 현황은 <표 3-1>과 같다. 본청 815명, 의회 36명, 직속기관 141명, 사업소 441명, 구청 846명, 동 436명 등 총 2,715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3-1〉 수원시 소속기관 및 직급별 공무원 현황(2014년)

소속기관별	직급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기관별 소계	2,715	815	36	141	441	846	436
정무직	1	1	-	-	-	-	-
1 급	-	-	-	-	-	-	-
2 급	2	2	-	-	-	-	-
3·4급	3	2	1	-	-	-	-
4 급	17	6	-	1	6	4	-
4·5급	3	-	-	3	-	-	-
5 급	155	46	5	8	20	36	40
6 급	580	236	6	23	94	178	43
7 급	789	257	11	48	127	231	115
8 급	636	191	5	37	111	189	103
9 급	504	67	8	11	75	208	135
전문경력관	4	3	-	1	-	-	-
연구직	9	1	-	-	8	-	-
지도직	9	-	-	9	-	-	-
별정직	3	3	-	-	-	-	-

자료: 수원시 통계(2014년 9월 기준)

여성과 관련된 수원시 행정조직 구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여성정책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팀, 여성친화팀, 건강가정팀, 다문화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 1명, 팀장 4명, 주무관 11명 등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성정책과의 조직구성과 주로 수행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여성과 관련된 주요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수원시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여성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 여성지도자대학,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단체 관리, 가족여성회관 등 각종 센터 운영 등과 여성친화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여성문화공간,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이 그러하다.



〈그림 3-1〉 수원시 여성정책과 조직구성 및 주요 담당 업무

##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 1) 자료수집과 분석기준

보다 구체적인 수원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분야별 주요 통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원시 거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주요 통계를 수집하였다.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과 수원 통계연보DB(<http://stat.suwon.go.kr>)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통계자료의 수집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통계자료는 성별 격차, 행정구역별, 연차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기준은 첫째, 여성과 남성이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비교분석을 위한 성별 격차를 분석하고자 하며, 둘째,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및 경기도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행정구역별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연차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2) 수원시 인구구조 분석

### (1) 수원시 성차 인구구성 분석

수원시 인구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표 3-2>와 같이 정리하였다. 행정구역 단위별로 인구구성에 있어 성차를 분석하기 위해 총인구에서 여성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값을 중앙값(50%) 기준에서 차이를 구해 지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성차지수라 하였으며 이는 여성인구의 비율이 커질수록 중앙값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성차가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전국(0.03)에 비해 수원시(0.34)와 경기도(0.34)의 성차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행정단위별 인구 구성 현황

행정구역	연도	인구규모(명)			인구구성 성차 <sup>1)</sup>	성차 지수 <sup>2)</sup>	연차별 증감율 <sup>3)</sup>
		총계	남(男)	여(女)			
전국	2009	49,773,145	24,929,939	24,843,206	-86,733	0.09	0.5%
	2010	50,515,666	25,310,385	25,205,281	-105,104	0.10	1.5%
	2011	50,734,284	25,406,934	25,327,350	-79,584	0.08	0.4%
	2012	50,948,272	25,504,060	25,444,212	-59,848	0.06	0.4%
	2013	51,141,463	25,588,336	25,553,127	-35,209	0.03	0.4%
경기도	2009	11,460,610	5,773,569	5,687,041	-86,528	0.38	1.5%
	2010	11,786,622	5,942,454	5,844,168	-98,286	0.42	2.8%
	2011	11,937,415	6,015,357	5,922,058	-93,299	0.39	1.3%
	2012	12,093,299	6,091,035	6,002,264	-88,771	0.37	1.3%
	2013	12,234,630	6,159,193	6,075,437	-83,756	0.34	1.2%
수원시	2009	1,073,149	539,655	533,494	-6,161	0.29	0.5%
	2010	1,077,535	543,233	534,302	-8,931	0.41	0.4%
	2011	1,088,489	548,382	540,107	-8,275	0.38	1.0%
	2012	1,120,258	564,008	556,250	-7,758	0.35	2.9%
	2013	1,148,157	578,035	570,122	-7,913	0.3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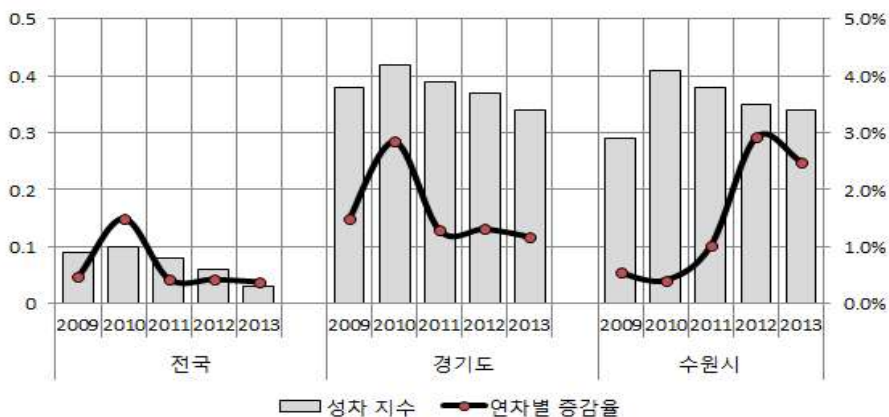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1) 인구구성 성차 = 여성인구 - 남성인구

2) 성차지수 =  $0.5 - [(여성인구 \div 총인구) \times 100]$

연차별 변동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09년 대비 2013년 인구의 증가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2.75%)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경기도(6.75%)와 수원시(6.99%)는 상대적으로 인구증가율이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인구의 증가에 있어서는 전국(2.86%)과 수원시(6.83%)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수원시는 상대적으로 남성인구의 증가비율(7.11%)이 여성인구의 증가비율(6.87%)보다 0.24%p 높은 반면, 전국은 남성(2.64%)과 여성(2.86%)의 증가비율에 있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기도에서도 여성(6.83%)이 남성(6.68%)에 비해 0.15%p 더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3-2>를 토대로 행정구역별 성차지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단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차가 크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경기도와 수원시의 경우에는 성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의 인구구조 특성을 추정하건데 전국단위에서는 연평균 0.6%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것에 반해, 경기도는 1.6%, 수원시 1.5%로 분석되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이는 2009년을 기준으로 2013년 인구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전국평균 2.7% 증가한 것에 비해 경기도 6.8%, 수원시 7.0%로 분석되었다.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그림 3-2> 행정구역별 연차별 성차지수 및 인구증감율(2009~2013년)

수원시의 인구증가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여성의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수원시의 1998년 이후 세대 및 인구구성, 세대당 인구수 등을 <그림 3-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3> 수원시 연차별 세대 및 인구구성

연도별	세대(가구) <sup>1)</sup>	인구 <sup>2)</sup>			세대당 인구수	인구밀도 (名/㎢)	
		계	남	여			
1998	279,121	856,404	431,133	425,271	3.07	7,070	6.89
1999	297,479	912,697	458,919	453,778	3.07	7,534	6.57
(2000)	285,511	946,704	476,639	470,065	3.32	7,816	3.73
2001	322,621	978,698	492,366	486,332	3.03	8,082	3.38
2002	345,411	1,023,875	515,074	508,801	2.96	8,455	4.62
2003	359,103	1,040,223	522,912	517,311	2.90	8,592	1.6
2004	365,667	1,042,132	523,215	518,917	2.85	8,607	0.18
(2005)	346,371	1,044,113	525,544	518,569	3.01	8,625	0.19
2006	395,615	1,082,271	543,739	538,532	2.74	8,941	3.65
2007	399,898	1,086,773	545,777	540,996	2.72	8,820	0.42
2008	402,462	1,090,678	547,640	543,038	2.71	9,013	0.36
2009	406,565	1,098,364	552,244	546,120	2.70	9,077	0.69
(2010)	412,253	1,104,670	556,870	547,800	2.68	9,129	0.57
2011	416,036	1,118,220	563,276	554,944	2.69	9,241	1.21
2012	427,790	1,147,955	577,797	570,158	2.68	9,479	2.65
2013 <sup>3)</sup>	439,996	1,178,509	593,469	585,040	2.68	9,735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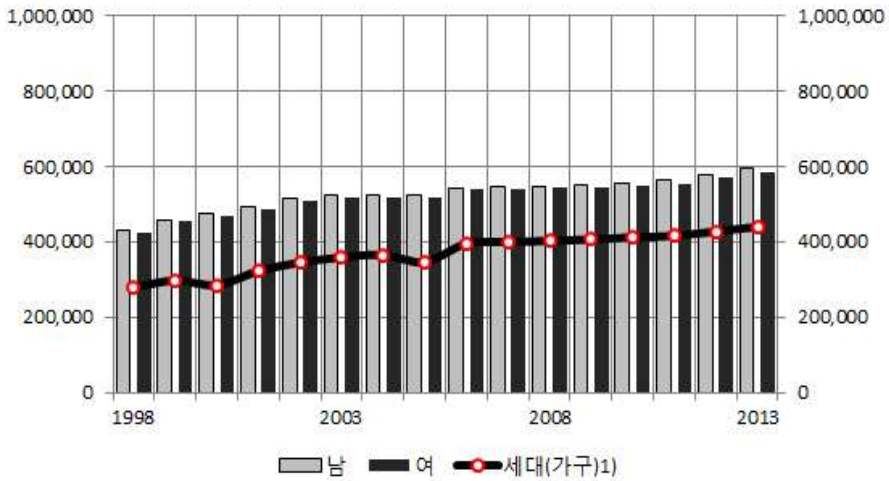
자료 : 수원시 통계연보DB '연도별 인구현황'

1) 98년 이후 외국인세대 제외

2) 외국인 포함 인구

3) <표 3-3>의 총계인구와 <표 3-2>의 총계인구의 차이는 외국인 포함 여부에 기인함

2013년을 기준으로 1998년 이후 세대(가구) 증감율을 살펴보면 57.6%이며, 성별 인구증감율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37.7%, 여성은 37.6%이다. 이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그림 3-3>과 같다.



자료 : 수원시 통계연보DB '연도별 인구현황'

<그림 3-3> 수원시 1998~2013년 성별 인구구성 및 세대(가구) 현황

인구증가는 출생 등에 따른 자연증가와 인구이동에 따른 증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표 3-4>와 같이 자연증가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수원시의 조출생률은 전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1.0%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망률은 1.0% 낮으며, 이는 자연증가분이 평균적으로 2.0% 이상인 이유가 된다.

〈표 3-4〉 행정구역별 인구동태 현황

행정 구역별	시점	출생		사망		자연증가	
		규모(명)	조출생률 (%) <sup>1)</sup>	규모(명)	조사망률 (%) <sup>2)</sup>	규모(명)	증가율 (%) <sup>3)</sup>
전국	2009	444,849	9.0	246,942	5.0	197,907	4.0
	2010	470,171	9.4	255,405	5.1	214,766	4.3
	2011	471,265	9.4	257,396	5.1	213,869	4.3
	2012	484,550	9.6	267,221	5.3	217,329	4.3
	2013	436,455	8.6	266,257	5.3	170,198	3.4
경기도	2009	113,691	10.0	45,132	4.0	68,559	6.0
	2010	121,751	10.5	47,687	4.1	74,064	6.4
	2011	122,027	10.4	48,394	4.1	73,633	6.3
	2012	124,747	10.5	50,830	4.3	73,917	6.2
	2013	112,128	9.3	50,959	4.2	61,169	5.1
수원시	2009	10,948	10.2	3,796	3.5	7,152	6.7
	2010	11,254	10.5	4,043	3.8	7,211	6.7
	2011	10,974	10.2	4,150	3.9	6,824	6.4
	2012	12,098	11.0	4,433	4.0	7,665	7.0
	2013	11,360	10.1	4,395	3.9	6,965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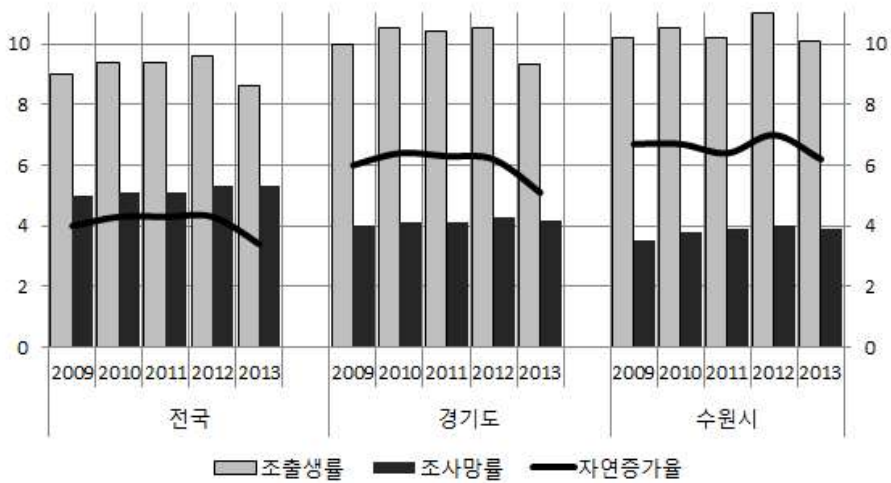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및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1) 조출생률 : (1년간 총출생아수 ÷ 당해연도 총인구) × 1,000

2) 조사망률 : (1년간 총사망자수 ÷ 당해연도 총인구) × 1,000

3) 자연증가율 : [(1년간 총출생아수 - 1년간 총사망자수) ÷ 당해연도 총인구] × 1,000

이를 토대로 설명하건데 수원시 인구가 짐차로 증가하는 이유는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조출생률과 낮은 사망률에 기인하는 자연증가분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3-4>와 같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및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그림 3-4〉 행정구역별 인구동태 현황(2009~2013년)

다음으로 전출입 인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수원시의 전출입 인구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전체 전출입 인구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전입인원은 199.2명, 전출인구는 192.4명으로 순이동 인구는 6.6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수원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에서 기인한 연평균 7,000명 내외의 자연증가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표 3-5>와 같이 상대적으로 순이동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 행정구역별 전출입 인구 현황

행정 구역별	시점	전체 전출입(천명)			시도내-시군구간 전출입(천명)		시도간 전출입(천명)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경기도	2013	1,895	1,821	74	507	507	621	547
	2012	1,945	1,862	83	528	528	650	568
	2011	2,062	1,987	76	555	555	675	599
	2010	2,169	2,026	142	601	601	734	591
	2009	2,176	2,082	94	595	595	720	626
수원시	2013	196	175	20	58	46	47	39
	2012	200	176	24	60	45	49	41
	2011	202	198	4	53	53	47	44
	2010	184	197	-13	47	65	49	44
	2009	214	216	-2	55	68	57	4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및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 (2) 수원시 연령대별 인구구성 분석

다음으로 수원시의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을 기준으로 <표 3-6>과 같이 정리하였다. 5세 단위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전국단위와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의 연령대별 인구비율을 정리하였다.

<그림 3-5>의 경우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 및 경기도의 연령대별 인구 비중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즉 인구비중의 차이가 양(+)<sup>1)</sup>의 값이 나오는 것은 수원시의 연령대별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의 값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원시의 연령대별 인구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6〉 행정구역별 연령대 인구구성(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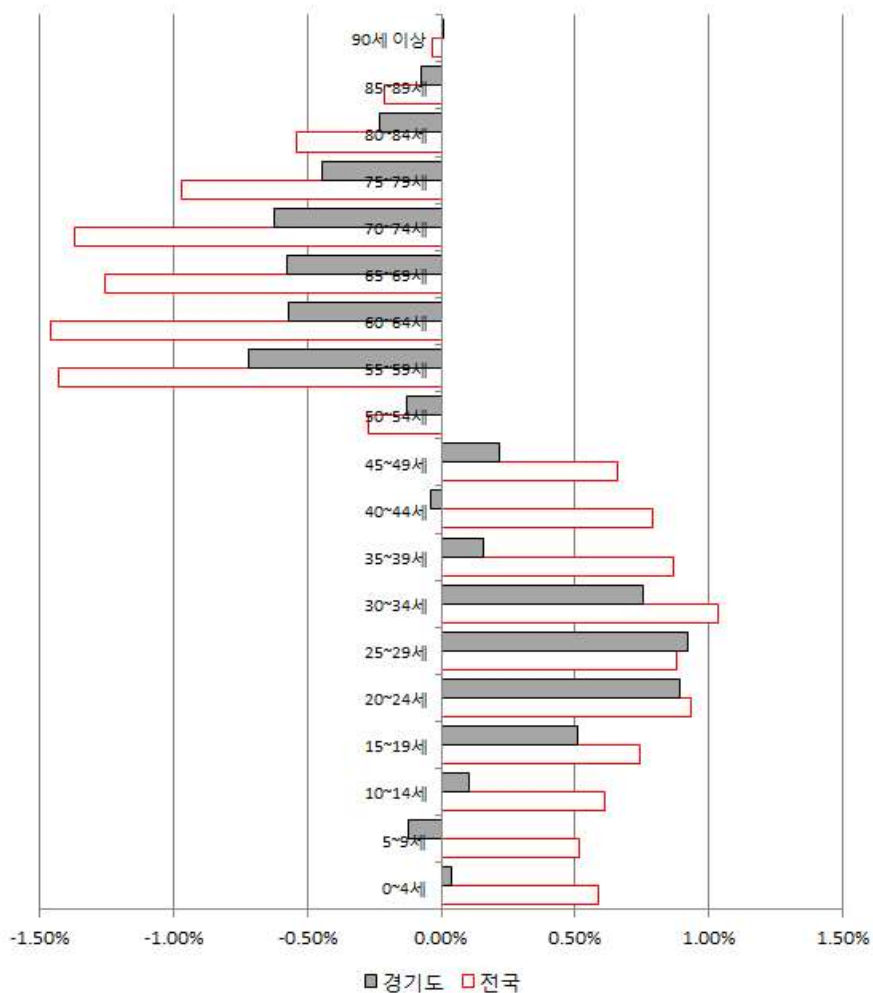
연령대	전국		경기도		수원시	
	인구규모 (명)	연령대별 구성비율 (%)	인구규모 (명)	연령대별 구성비율 (%)	인구규모 (명)	연령대별 구성비율 (%)
총계	51,141,463		12,234,630		1,148,157	
0~4세	2,301,320	4.5%	617,839	5.0%	58,413	5.1%
5~9세	2,322,614	4.5%	633,737	5.2%	58,050	5.1%
10~14세	2,809,185	5.5%	733,691	6.0%	70,050	6.1%
15~19세	3,420,530	6.7%	847,111	6.9%	85,320	7.4%
20~24세	3,405,202	6.7%	819,534	6.7%	87,133	7.6%
25~29세	3,184,327	6.2%	756,605	6.2%	81,557	7.1%
30~34세	4,086,122	8.0%	1,012,245	8.3%	103,634	9.0%
35~39세	3,929,292	7.7%	1,026,762	8.4%	98,150	8.5%
40~44세	4,599,684	9.0%	1,201,794	9.8%	112,302	9.8%
45~49세	4,320,277	8.4%	1,087,138	8.9%	104,551	9.1%
50~54세	4,404,070	8.6%	1,036,626	8.5%	95,778	8.3%
55~59세	3,621,186	7.1%	779,947	6.4%	64,928	5.7%
60~64세	2,486,668	4.9%	486,078	4.0%	39,064	3.4%
65~69세	1,985,888	3.9%	391,838	3.2%	30,172	2.6%
70~74세	1,803,037	3.5%	340,393	2.8%	24,771	2.2%
75~79세	1,269,763	2.5%	239,992	2.0%	17,414	1.5%
80~84세	708,188	1.4%	131,505	1.1%	9,737	0.8%
85~89세	323,430	0.6%	60,878	0.5%	4,823	0.4%
90세 이상	120,230	0.2%	23,251	0.2%	2,310	0.2%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및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이를 토대로 추정하건데 수원시의 연령대별 인구구성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50대를 기준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원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50대 미만의 연령대별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면 50대 이상의 인구비중은 낮은 것을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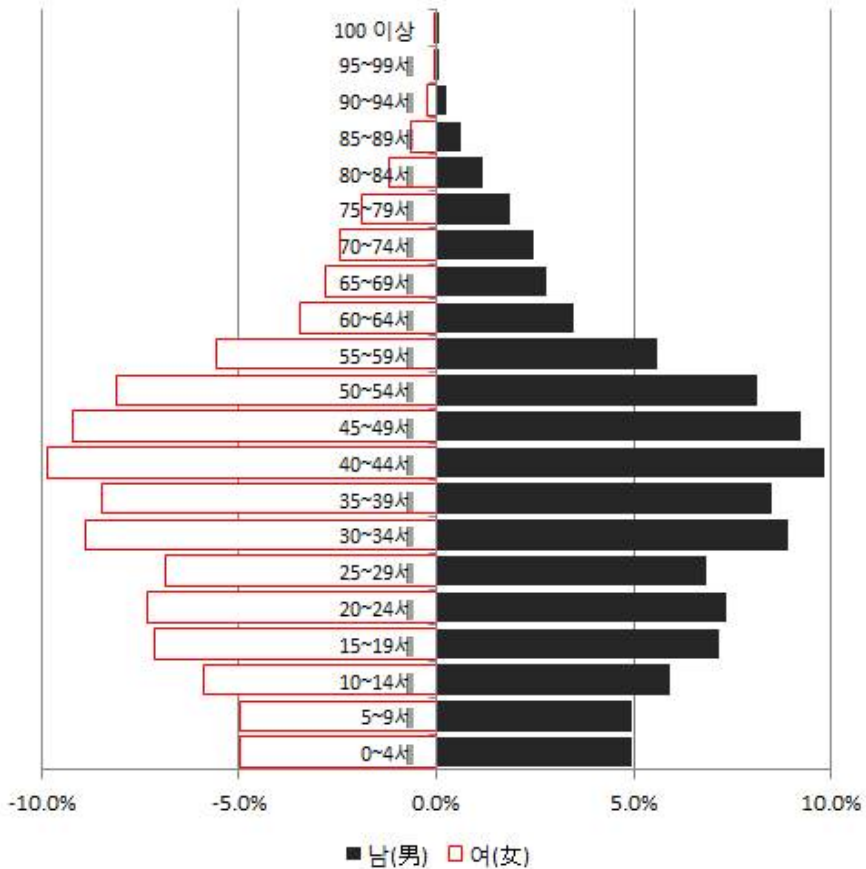
인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원시 거주 인구의 연령대가 전국 및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령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히 20대와 30대의 인구 비중은 전국과 경기도 모두 상대적으로 1.0% 내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연령대별 인구구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및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그림 3-5〉 수원시 기준 전국 및 경기도의 연령대별 비율 비교

연령대별 분포와 더불어 수원시 성별 인구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3-6>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3-6>에서 나타나듯 수원시 연령대별 인구구성은 대체로 일반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호리병 형태의 구성을 보여 준다.



자료 : 수원시 통계연보DB '연도별 인구현황'

<그림 3-6> 수원시 연령대별 인구구성

다만 <표 3-7>에서 볼 수 있듯이 60대 이상 인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차가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 남성과 여성의 성차지수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는 7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노인인구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에서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인구가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보다 나아가 2014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89,227명)의 23.5%에 해당하는 20,942명이 1인 독거노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원시 65세 노인인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69.7%(14,589명)로 확인되었다.

〈표 3-7〉 수원시 연령대별 인구구성과 구성비율 성차(2013년)

연령대	인구규모(명)			연령대별 구성비율(%) <sup>1)</sup>		연령대별 성차지수 <sup>2)</sup>
	계	남(男)	여(女)	남(男)	여(女)	
총계	1,148,157	578,035	570,122	50.0%	50.0%	0.3
0~4세	58,413	30,084	28,329	52.0%	48.0%	1.5
5~9세	58,050	29,824	28,226	51.0%	49.0%	1.4
10~14세	70,050	36,370	33,680	52.0%	48.0%	1.9
15~19세	85,320	44,625	40,695	52.0%	48.0%	2.3
20~24세	87,133	45,292	41,841	52.0%	48.0%	2.0
25~29세	81,557	42,471	39,086	52.0%	48.0%	2.1
30~34세	103,634	52,913	50,721	51.0%	49.0%	1.1
35~39세	98,150	49,738	48,412	51.0%	49.0%	0.7
40~44세	112,302	56,178	56,124	50.0%	50.0%	0.0
45~49세	104,551	51,955	52,596	50.0%	50.0%	-0.3
50~54세	95,778	49,540	46,238	52.0%	48.0%	1.7
55~59세	64,928	33,140	31,788	51.0%	49.0%	1.0
60~64세	39,064	19,329	19,735	49.0%	51.0%	-0.5
65~69세	30,172	14,216	15,956	47.0%	53.0%	-2.9
70~74세	24,771	10,810	13,961	44.0%	56.0%	-6.4
75~79세	17,414	6,740	10,674	39.0%	61.0%	-11.3
80~84세	9,737	3,016	6,721	31.0%	69.0%	-19.0
85~89세	4,823	1,255	3,568	26.0%	74.0%	-24.0
90~94세	1,799	420	1,379	23.0%	77.0%	-26.7
95~99세	341	72	269	21.0%	79.0%	-28.9
100 이상	170	47	123	28.0%	72.0%	-22.4

자료 : 수원시 통계연보DB '연도별 인구현황'

1) 연령대별 비율 : (해당 연령대 성별 인구 ÷ 해당 연령대 총 인구) × 100

2) 구성비율 성차 : 0.5 - [(해당 연령대 여성인구 ÷ 해당 연령대 총인구) × 100]

### (3) 수원시 교육수준별 인구구성 분석

다음으로 행정구역별 교육수준에 따른 여성 인구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정책수요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시를 기준으로 전국과 경기도의 격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미만의 경우 수원시만 50%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중학교 이상 4년제 미만 대학까지의 교육수준에서는 수원시의 성비가 높았으며 4년제 이상 대학에서 대학원과정까지의 여성 성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수준별 여성인구 특성 분석을 위한 특성지표체계의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8〉 행정구역별 교육수준별 여성비율

행정구역	교육수준별 여성인구 비율			수원시 기준 비교	
	전국	경기도	수원시	전국	경기도
6세이상(소계)	50.40%	50.10%	49.80%	-0.60%	-0.30%
초등학교	57.60%	56.60%	56.40%	-1.20%	-0.20%
중학교	52.60%	52.80%	53.50%	0.80%	0.60%
고등학교	50.30%	51.40%	52.80%	2.50%	1.40%
대학(4년제미만)	48.10%	48.60%	49.50%	1.40%	0.90%
대학교(4년제)	42.50%	42.70%	41.30%	-1.20%	-1.40%
대학원(석사)	39.70%	37.30%	36.80%	-2.80%	-0.50%
대학원(박사)	26.70%	23.80%	21.10%	-5.60%	-2.70%

자료 : 수원시 통계연보DB '연도별 인구현황'

## 제2절 주요 조례 및 사업 분석

### 1. 수원시 여성관련 주요 조례 분석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개발을 위해 현행 수원시의 여성관련 주요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목적은 조례에 규정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 주요 분야, 사회참여 독려를 위한 제도 등을 파악하여 지표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원시의 여성관련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제7편(복지여성) 제2장(여성정책)에 14개 조례와 1개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례를 모두 분석한 결과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조례는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sup>3)</sup>와 동법 시행규칙<sup>4)</sup>,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sup>5)</sup>,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sup>6)</sup>,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sup>7)</sup> 등이 있다. 다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여성정책에 대한 조례라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해당 분류기준을 제외한 상황에서 사회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sup>8)</sup>가 있으나 해당 조례는 여성을 특정하게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3)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4.07.31 조례 제3321호

4)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11.30 규칙 제1914호

5)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2.06 조례 제3103호

6)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0.09.06 조례 제2931호

7)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11.12 조례 제3268호

8)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10.07 조례 제3331호

## 1)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선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지표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서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 추진목표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포함될 필요성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제1조(목적)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4가지 영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평등과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적 등위에 대한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제1조(목적)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성평등을 촉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시 세부 목표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의 사회참여를 조건으로 성평등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는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각 조문별로 제11조(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에서 중요한 정책과정에서의 참여, 여성의 대표성, 제12조(공직 등의 참여촉진)에서는 여성 관리직 진출, 성평등 채용목표제, 제13조(경제활동의 지원)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취업, 창업, 기업활동, 일과 생활의 조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제16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정보화 능력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17조(영유아 보육)와 제21조(모성보호의 강화)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모성보호 시책,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관련 예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18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제19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제20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등에서는 여성인권을 성평등을 위한 주요한 지표개발 분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건데

여성의 대표성, 여성정책과정 참여, 인권, 보육 등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3-9〉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분석

조항	조문명	조문내용	내용분석 시사점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경제·사회·문화</li> </ul> </li> <li>•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li> <li>- 여성의 권익증진</li> <li>-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한 성평등 촉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관점에서 사회참여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영역</li> <li>• 사회참여와 성평등 관계 구성</li> </ul>
제3조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의 촉진</li> <li>-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사회참여 확대의 촉진 및 사회참여 지표개발의 근거</li> </ul>
제7조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 추진 목표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포함</li> </ul>	
제11조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적 시각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 반영</li> <li>-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개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li> </ul> </li> <li>• 지표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대표성 제고</li> </ul> </li> </ul>
제12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해 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필요</li> <li>- 여성의 관리직 진출 확대 노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관리직 진출</li> <li>- 성평등 채용목표제</li> </ul> </li> </ul>
제13조	경제활동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활동 등</li> <li>- 일과 생활의 조화</li> </ul> </li> </ul>
제14조	일·생활 조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과 생활 조화 병행가능한 시책</li> </ul> </li> </ul>	
제16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 참여</li> <li>- 정보화 능력</li> </ul> </li> </ul>
제17조	영유아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보호 및 건전한 교육과 방과 후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보육관련 예산 투입</li> </ul> </li> </ul>

조항	조문명	조문내용	내용분석 시사점
제18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소속·투자기관의 장 책무</li> <li>-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개발 분야</li> <li>- 여성인권</li> </ul>
제19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책무</li> <li>- 범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li> <li>- 피해자 자립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개발 내용</li> <li>- 성차별, 성희롱 등 성범죄 방지 교육</li> <li>- 성차별, 성희롱 등 성범죄 대응프로그램</li> <li>- 성차별·성평등 인식</li> </ul>
제20조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책무</li> <li>-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 개선</li> <li>- 성평등 의식 확산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차별, 성희롱 등 성범죄 대응프로그램</li> <li>- 성차별·성평등 인식</li> </ul>
제21조	모성보호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책무</li> <li>-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여성 보호</li> <li>-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개발 분야</li> <li>- 여성복지</li> <li>• 지표개발 내용</li> <li>- 모성보호</li> <li>- 보육시설</li> </ul>
제22조	여성의 복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책무</li> <li>-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가출여성 및 보호필요 여성 발생 예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필요 집단 구분</li> <li>- 저소득 모자가족</li> <li>- 미혼모</li> <li>- 가출여성 등</li> </ul>
제33조	성평등위원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위원회 기능 : 시장 자문</li> <li>-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li> <li>-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li> <li>-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참여와 성평등 관계 구성</li> </ul>

## 2)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제8조(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의 설정)에서는 친화도시 조성의 기준으로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친화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개념의 계층적 등위에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제12조(성별분리통계)에서는 통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성별분리를 통해 현재 여성과 남성의 성차를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에서는 남성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성별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셋째, 해당 조례에서 여성참여에 대한 분야는 제10조(정책결



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지표 내용으로서 각종 위원회 구성시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직 여성 공무원 확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분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표 구성에 있어 여성친화기업, 일자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실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3-10〉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분석

조항	조문명	조문내용	시사점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남녀가 동등하게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참여</li> <li>-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정책과 발전과정 에 남녀 평등한 참여</li> </ul>
제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화도시 조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한 근거 마련</li> </ul>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책무 : 주요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 및 여성의 대표성 제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li> <li>-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개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대표성 제고</li> </ul> </li> <li>• 지표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40% 이상 여성 위촉 할당</li> <li>-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노력</li> </ul> </li> </ul>
제12조	성별분리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책무 : 성별분리통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설계시 성별분리</li> </ul>
제18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책무 : 여성(직업)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기관의 연계 를 통해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개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경제활동</li> </ul> </li> <li>• 지표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li> </ul> </li> </ul>
제19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친화기업 및 일자리 확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친화기업</li> <li>- 여성친화 일자리</li> </ul>

### 3) 여성관련 각종 기관 설치 및 운영조례

수원시에는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며, 해당 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조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여성문화공간-휴(休), 예절교육관, 가족여성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기관에 대한 조례를 모두 분석한 결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가 있었다.

〈표 3-11〉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 분석

조항	조문명	조문내용	시사점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의 목적</li> <li>-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 규정</li> </ul>	
제3조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회관 수행 기능</li> <li>- 교육사업</li> <li>-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li> <li>- 상담사업</li> <li>- <b>저소득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b></li> <li>- 지역여성단체·개인의 사회 활동 지원사업</li> <li>- 기타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개발 내용</li> <li>- 여성 사회참여 지도</li> </ul>

수원시 가족여성회관과 여성문화공간-휴에 대한 조례를 분석한 결과 2개 조례 모두의 기능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규정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가족여성회관의 경우 저소득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성문화공간-휴에서는 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단체 운영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3-12〉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분석

조항	조문명	조문내용	시사점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건강 문화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성문화공간-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문화공간 수행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건강 지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li> <li>- 여성의 건강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식 확산</li> <li>- <b>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단체 운영</b></li> <li>- 여성의 건강 문화 조성을 위한 보건 의료 네트워크 활성화</li> <li>- 그 밖에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공동체 활동</li> </ul> </li> </ul>

## 2. 수원시 여성 및 사회참여 주요 사업 분석

수원시에서 2013년 시행하였거나, 2014년 시행될 예정인 여성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사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과 사회참여를 키워드로 하여 수원시에서 공개한 「2014 시정업무계획」을 토대로 2013년 주요 시정성과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공약사업이 중요한 방향타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2014년 7월에 논의된 「민선 6기 약속사업 검토서」 자료 또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여성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주요 사업을 분석하는 이유는 수원시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현황을 확인하여 수원시 여성 사회참여 지표개발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1) 2013년 주요 사업 성과 분석

### (1) 사회참여 관련 주요 사업 성과 분석

「2014 시정업무계획」에 따르면 2013년 주요 사업 성과들 가운데 지역사회 사회참여 사업으로는 <표 3-13>에서 나타나듯 3개 사업이 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1) 지역사회 대상 마을 중심 자원봉사, 2) 노인 대상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3) 여성 대상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인권보호 등이 보고되었다.

<표 3-13> 2013년 수원시 사회참여 분야 주요 사업 성과

1) 사람과 마을 중심의 자발적 자원봉사 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리더센터 이미지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관련 네트워크 강화 : 기관협약 11건, 자원봉사자연계 345건</li> <li>• 제2회 휴먼틴볼런티어 캠프 운영 : 수혜국 10개 팀, 참가팀 20개 팀, 300명</li> <li>• 사랑의 밥차 운영 : 14회, 20개 단체, 수혜자 3,410명</li> <li>• 청소년 해외봉사캠프 : 2회(몽골, 캄보디아), 55명</li> <li>•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준공 및 이전 : 2013. 4. 24</li> <li>• 제10회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 : 2013. 9. 24 ~ 9. 26</li> </ul> </li> <li>○ 마을중심의 자원봉사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시민 마을봉사센터 발굴 운영 : 18개소</li> <li>• 마을 터전 조사 및 발굴 : 68건</li> <li>• 마을봉사센터 봉사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855건 16,031명</li> <li>• 상담 및 연계 : 466건 551명</li> <li>• 지동벽화 프로젝트 참여 인원 : 14회 557명</li> </ul> </li> <li>○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단체 및 동아리 지원 : 30개 단체 40,000천원</li> <li>• 수요자 중심의 V-나눔 스쿨 운영 : 521회 8,258명</li> <li>• 자원봉사 스마트 마일리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스마트 카드 3,259건, 할인쿠폰 670건</li> <li>- 신규 할인가맹점 62개, 공공시설물 51개소 운영</li> </ul> </li> <li>• 자원봉사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2회, 100개 단체 188명</li> <li>• 여주군 집중호우 피해지역 자원봉사 지원 : 120명(2013. 7. 31 ~ 8. 2)</li> </ul> </li> </ul>
2) 노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 -	64개 사업 1,711명
○ 어르신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	일자리 알선(창출) 100명
○ 찾아가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	6개 분야 130명
○ 노인복지관 운영 -	3개복지관 2,740백만원
○ 경로당 운영	
• 난방비 및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 445개소 2,133백만원	
• 양곡 지원 : 445개소 144백만원	
• 여가 프로그램 운영 : 120개소 179백만원	
<b>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및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b>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개소 - 영통새일(2013.2.7), 팔달새일(2013.2.26)	
○ 여성전문인력 양성(미디어중독예방 강사) -	20명 10백만원
○ 전업주부 재취업 교육 -	4개 과정 88명 60백만원

사업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대상별로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노인의 경우에는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내용은 일자리와 시설확충 등이다. 둘째, 여성의 경우에는 자립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일자리 지원을 포함하여 인력개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노인과 여성과는 다른 구분에 해당하지만 마을을 단위로 하는 사회참여의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수원시에서 사회참여는 경제분야에서 자립을 위한 일자리, 인력개발 등으로 사업영역을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회분야에서는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사회참여 활성화를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여성대상 주요 사업 성과 분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2013년 사업을 분석한 결과 1) 여성 및 아동 보호, 2) 방법서비스, 3) 출산장려정책 등이 해당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2013년 수원시 여성대상 주요 사업을 살펴본 결과 첫째, 여성은 성범죄 대

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과 보육 정책 등으로 여성에 대한 사업을 구성되어 있었다. 수원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여를 키워드로 하는 사업은 전술한바와 같이 경제분야에 있어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여성대상 사업의 경우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출산 장려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4〉 2013년 수원시 여성대상 주요 사업 성과

<b>1) 폭력방지 및 아동·여성 보호 안전망 강화</b>	
○ 여성폭력관련 보호시설 운영 지원 -	4개소 248백만원
○ 여성폭력피해자 치료, 가해자 교정 및 의료지원 -	4개소 469백만원
○ 성폭력·성매매예방 교육 -	182회 82,058명
○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제작 -	30개 초교 18백만원
<b>2) 우먼 하우스케어 방법서비스 운영</b>	
○ 수원시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여성가구의 안전망 구축	
○ 출입문·창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로 주거침입 방지(경보음 발생 등)	
○ 우먼하우스 케어 방법서비스 신청자 현황 -	163가구
<b>3) 가족 친화적 출산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가정 육성</b>	
○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	셋째자녀 1,000천원, 넷째이후 자녀 2,000천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프로그램 운영 -	36개 분야 13,244명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 -	1,626가정 21,211건
○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산모 산후조리 한약할인 MOU -	387명 지원

## 2) 2014년 주요 사업 계획 분석

### (1) 민선 6기 공약 분석

2013년 시행된 사업 분석 결과 여성의 사회참여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여성에 대한 인식은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정책 기조가 변화하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7월 공개된 수원시 「민선 6기 약속사업 검토서」에서 제시된 여성 및 사회참여에 대

한 주요 공약사업들과 추진방향을 정리한 결과는 <표 3-15>와 같다. 이를 토대로 2013년 주요 사업성과와 더불어 분석한 결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안전’, ‘보호’, ‘일자리’, ‘출산’ 등을 키워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주요 사업성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안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가 제시되었으나, 이는 기존의 범죄로부터의 보호 등과 연계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표 3-15> 부서별 주요 공약목록 및 추진방향

담당 부서		공약목록 및 추진방향	중점사업
복지 여성국	여성 정책과	1-11. 어린이 여성, 어르신 안전도시 조성 ◦여성안심키가스카우트 시행 ◦우먼 하우스케어 확대	○
		3-18. 초보 부모 안전 교육 프로그램	
		3-51. 여성발전회관 건립	추 가
	노인 복지과	1-11. 어린이 여성, 어르신 안전도시 조성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 확대 및 가스안전장치 설치	
경제 정책국	일자리 창출과	2-18.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2-19. 청년, 경력단절여성, 조기퇴직자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복지통합센터 설립	
	교육 청소년과	1-11. 어린이 여성, 어르신 안전도시 조성 ◦학교 식수안전 강화	
보건소	팔달 보건소	3- 5. 임산부 건강 챙기기 프로젝트 (기존 : 산모건강 관리 및 여성건강서비스 확대)	

## (2) 사회참여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2014년 수원시 사업계획을 분석하였다. <표 3-16>과 같이 정리결과를 토대로 2013년의 시행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여 사업이 보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기존 사업 성과와 차이가 있는 것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성범죄에 대한 보호가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사회참여의 대상으로 장애인이 포함된 것은 2014년 수원시 사업계획에서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업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6〉 2014년 수원시 사회참여 주요 사업 계획

<b>1) 여성의 사회참여 GO! 여성의 행복지수 UP!</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건강을 위한 여성문화공간-휴 운영</li>   <li>○ 여성인력커리어개발 및 취업지원</li> <li>• 새일센터, 가족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li>   <li>○ 여성인권보호 지원체계구축</li> <li>•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li> <li>•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li> <li>• 초등학교 안전지도제작,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등</li> </ul>
<b>2)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 확충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li> <li>• 재활, 여가, 문화, 정보화, 취업교육 등 61개 프로그램</li>   <li>○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li> <li>•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2개 사업 추진</li> <li>•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9개소 지원</li>   <li>○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li> <li>•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 카페 설치</li> </ul>

### (3) 여성대상 주요 사업 계획

다음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업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17>과 같으며, 주요한 키워드는 ‘보육’, ‘양성평등’, ‘여성친화’, ‘보호’ 등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사업성과와 비교할 때 ‘보육’과 ‘보호’ 등이 주요 키워드로 확인된 것은 큰 차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양성평등’과 ‘여성친화’가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된 것은 여성에 대한 정책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정책에 있어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또한 수원시 전반의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계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사회참여를 키워드로 하는 사업내용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육과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수준의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17〉 2014년 수원시 여성대상 주요 사업 계획

<b>1) 건강한 가정 · 행복한 가족 만들기!</b>	
○ 아이돌보미사업-	양육자의 야근 · 출장 · 질병 시 서비스 연계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가족 교육 · 가족상담 · 가족문화 · 가족돌봄 서비스 제공 등	
○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가족 수련회, 가족사랑 자연캠프, 사랑의 부부수련회	
○ 한부모가족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교육비, 양육비 지원	
• 복지자금대여, 두드림통장 매칭액 지원, 사랑의 한부모가족 학교 운영	
<b>2) 여성정책 내실화로 양성평등사회 실현</b>	
○ 양성평등 실현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및 심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비율 확대 등	
○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	
• 전문가 토론회,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추진, 여성친화 시민모니터단,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운영, 동아리활동, 홍보물 제작	
<b>3)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인프라 확충</b>	
○ 아이사랑 시립어린이집 확충 -	2개소
• 호매실 어린이집 신축 : 2014. 9월	
• 광교 신설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집 신축 : 2014. 10월	
○ 영통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2013. 1. ~ 2015. 1.
• 규모 : 부지면적 625㎡, 건축연면적 1,320㎡(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일시보육실 등	
○ 아이러브맘 카페 확대 -	4개소 → 7개소
• SK아트rium, 파장주민센터 내, 여성문화공간-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난감 도서관 확대 - <span style="float: right;">2개소 → 6개소</span></li> <li>• 호매실 도서관, 창룡 도서관 신축 건축물내 : 2개소</li> <li>• 여성문화공간-휴, 보훈회관 건축물내 : 2개소</li> <li>• 현재 운영중인 시설(2개소) : 매교동, 수원시보육정보센터 내</li>   <li>○ 행궁동내 영·유아 관련시설 신축 설치(안)</li> <li>• 위치 : 팔달구 신평동 92-2,93-1 (부지면적 : 866㎡)</li> <li>• 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일시보육실, 다목적실 등</li>   <li>○ 가정양육 아동 시간제 보육실 설치 운영 - <span style="float: right;">2개소</span></li> </ul>
<b>4) 양질의 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한 아이돌봄 『좋은 품성학교』 운영</li> <li>• 대상 : 만3 ~ 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903명)</li> <li>• 인성교육 실시 우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인성교육 연수 프로그램 추진</li>   <li>○ 영유아 육아지원 아이맘 멘토링</li> <li>• 대상 : 예비부모 ~ 만5세 이하 부모</li>   <li>○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li> <li>• 대상 : 취약계층 아동 1,300명(0세 ~ 만12세) 및 그 가족</li>   <li>○ 삼성 수원 꿈쟁이 학교 운영</li> <li>• 참여대상 : 삼성전자,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li> <li>• 대상 : 지역아동센터 51개소 1,383여명</li> <li>• 예능교실, 오케스트라단, 체육교실 등 운영</li> </ul>
<b>5) 미래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서비스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검진 지원</li> <li>• 영 유아 건강검진 : 국가필수 예방접종, B형간염 수직감염 등</li> <li>• 아이낳고 싶은 수원 모자보건사업 : 임신 확인부터 산전 산후까지 관리</li> <li>•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li>   <li>○ 건강서비스 제공</li> <li>• 체계적인 산후관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고위험 임산부 지원</li> <li>• 저출산 극복 및 여성과 어린이에게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li> </ul>
<b>6) 우먼 하우스케어 방법서비스 확대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대상 : 수원시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여성가구</li> <li>○ 주요내용</li> <li>• 출입문·창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로 주거침입 방지(경보음 발생 등)</li> <li>• 스마트폰, 인터넷, 리모콘을 통한 자가 보안서비스 원격 제어</li>   <li>○ 소요예산 : 22,000천원(여성발전기금)</li> </ul>

## 제3절 주요 지표 분석

수원시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생산된 지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수원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표의 미비점과 보완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화 분야의 경우 수원시에서 생산된 지표가 없어 배제하고 정치, 경제, 사회 3분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1. 정치분야 주요 지표 검토

수원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정치분야에 해당하는 주요 지표는 수원시의 국회의원 후보자와 당선자 성비, 시군구 의회의 여성의원 현황 등이다. <표 3-18>과 같이 선거구별 성별 국회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2008년에 비해 2012년 행정구역 전 단위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원시의 경우 2008년 후보자 비율은 17.6%였으나, 2012년 14.3%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선자의 경우에도 수원시는 2008년 25.0%에서 0.0%로 감소되어 후보자와 당선자 규모에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8〉 선거구별 성별 국회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유형		전국	경기도	수원시	
2008년	후보자	전체(명)	1,113	227	17
		여자(명)	132	34	3
		<b>여성비율(%)</b>	<b>11.9</b>	<b>15.0</b>	<b>17.6</b>
	당선자	전체(명)	245	51	4
		여자(명)	14	4	1
		<b>여성비율(%)</b>	<b>5.7</b>	<b>7.8</b>	<b>25.0</b>
2012년	후보자	전체(명)	902	175	14
		여자(명)	63	17	2
		<b>여성비율(%)</b>	<b>7.0</b>	<b>9.7</b>	<b>14.3</b>
	당선자	전체(명)	246	52	4
		여자(명)	19	6	0.0
		<b>여성비율(%)</b>	<b>7.7</b>	<b>11.5</b>	<b>0.0</b>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수원시의 시군구의회 의원은 5기 7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으며 여성의 비율은 20.6%였다. 상대적으로 6기 시군구의회에서는 8명의 여성이 당선되면서 비율이 20.6%에서 26.7%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의석의 수가 34석에서 30석으로 감소했음에도 여성의원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표 3-19>의 결과와 같다.

〈표 3-19〉 수원시 회차별 시군구의회 여성의원 현황

행정구역	회차	당선인 합계	당선인 남성(명)	당선인 여성(명)	여성 비율(%)	증감율(%)
수원시	5기	34	27	7	20.6	
	6기	30	22	8	26.7	14.3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이를 토대로 추정하건데 전국단위의 정치분야의 여성의 참여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수원시는 절대적인 비중에서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지만 상대적으로 전국단위에 비해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분야 가운데 정부부문의 주요 지표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수원시 연차별 공무원 현황을 토대로 추정하건데 여성공무원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표 3-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20> 수원시 연차별 공무원 현황

연도별	공무원 현황			여성공무원 비율(%)
	총계	남(男)	여(女)	
2010	2,489	1,573	916	36.8
2011	2,507	1,567	940	37.5
2012	2,555	1,566	989	38.7
2013	2,652	1,571	1,081	40.8
2014	2,668	1,586	1,082	40.6

자료 : 수원시 내부자료

<표 3-21>은 수원시 주요부서 공무원 성별 현황자료이다. 여성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특정업무 영역에 여성의 비중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감사분야에서는 2010년 이후 여성의 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수원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표 3-21〉 수원시 주요부서 공무원 성별 현황

(각 년도 말 기준, 단위 : 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기획	계	11	11	20	18	23
	남성	7	6	11	11	15
	여성	4	5	9	7	8
	여성비율	36.36	45.45	45.00	38.89	34.78
예산	계	10	9	19	20	20
	남성	4	7	10	14	14
	여성	6	2	9	6	6
	여성비율	60.00	22.22	47.37	30.00	30.00
인사	계	7	7	7	7	8
	남성	4	4	4	6	5
	여성	3	3	3	1	3
	여성비율	42.86	42.86	42.86	14.29	37.50
감사	계	17	18	18	18	19
	남성	15	14	13	13	13
	여성	2	4	5	5	6
	여성비율	11.76	22.22	27.78	27.78	31.58
실·국 주무과	계	147	199	191	192	184
	남성	94	140	124	128	109
	여성	53	59	67	64	75
	여성비율	36.05	29.65	35.08	33.33	40.76

자료 : 수원시 내부자료

수원시의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및 위촉직 여성위원을 분석한 결과는 <표 3-22>와 같다. 분석결과 2012년부터 위원회 규모자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여성위원의 위촉 현황 또한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 등 특정 신분이 차지하는 당연직 비중의 특성이 반영될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표 3-22〉 수원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현황

(각 년도 말 기준, 단위 : 명)

연도	위원회 (개)	전체			당연직			위촉직		
		전체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12	45	736	517	219	150	131	19	586	386	200
2013	63	1090	762	328	225	212	13	865	550	315
2014	66	1172	822	350	231	216	15	931	596	335

자료 : 수원시 내부자료

## 2. 경제분야 주요 지표 검토

경제분야는 앞서 전술한 것과 같이 여성의 사회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수원시의 주요 조례와 2013년 주요 사업성과 및 2014년 사업 계획에서 나타나듯 여성의 사회참여는 주로 경제분야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정자(1997)는 한국여성의 사회참여를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 지표는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여성취업자 종사상지위, 여성취업자의 취업산업범주, 여성취업자의 취업직업 등이다. 분석을 위한 기준은 연령, 결혼상태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원시 경제분야의 주요 지표를 검토한 결과 경제활동인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수원시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전국을 기준으로 여성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4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것에 반해 수원시의 경우에는 2010년과 2011년에는 40%를 넘었으나, 이후 39% 내외로 약 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경제활동을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수원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 확보가 전제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이는 실질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23〉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행정구역	시점	경제활동인구(천명)			여성비율 (%)	비교	
		총계	남(男)	여(女)		전국	경기도
전국	2010	24,748	14,492	10,256	41.4		
	2011	25,099	14,683	10,416	41.5		
	2012	25,501	14,891	10,609	41.6		
	2013	25,873	15,071	10,802	41.8		
경기도	2010	5913	3582	2331	39.4	-2.0	
	2011	6045	3649	2396	39.6	-1.9	
	2012	6126	3706	2420	39.5	-2.1	
	2013	-	-	-	-		
수원시	2010	529.3	317.2	212.1	40.1	-1.3	0.7
	2011	548.7	325.2	223.5	40.7	-0.8	1.1
	2012	564.5	345.5	219	38.8	-2.8	-0.7
	2013	563.7	343.7	220	39.0	-2.8	

자료 : 통계청, 2000~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2013년 지역별 고용조사,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분석 결과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표 3-2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현재 전국, 경기도, 수원시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성비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낮은 상황이며 전국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12년에 전년대비 5.1% 이상 증가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분석을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비참여가 환경적 요인의 문제인지, 또는 개인의 무의사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지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제기된다.



〈표 3-24〉 행정구역별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행정구역	시점	총계(천명)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규모		연차별 증감율(%)
			규모	비율	
전국	2010	15,841	10,485	66.2	
	2011	15,953	10,561	66.2	0.72
	2012	16,081	10,645	66.2	0.8
	2013	16,223	10,710	66.0	0.61
경기도	2010	3706	2539	68.5	
	2011	3829	2602	68.0	2.48
	2012	3826	2616	68.4	0.54
수원시	2010	367.3	242.4	66.0	
	2011	366.2	235	64.2	-3.05
	2012	355.7	246.9	69.4	5.06
	2013	377.2	255.5	67.7	3.48

자료 : 통계청, 2000~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2013년 지역별 고용조사,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통계청(2009-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경기도(2012) 2012 경기도 시군별 성인지 통계

다음으로 성별 취업자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3-25>와 같이 전국과 경기도 모두 2010년 대비 전체 취업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여성의 성비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성비는 2010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25〉 행정구역별 성별 취업자 현황

행정구역	시점	취업자 총인구(천명)			여성비율(%)	연차별 증감율(%)
		총인구	남성	여성		
전국	2010	23,684	13,930	9,755	41.2	
	2011	24,125	14,186	9,939	41.2	1.89
	2012	24,402	14,277	10,125	41.5	1.87
	2013	25,545	14,777	10,768	42.2	6.35
경기도	2010	5,658	3,447	2,211	39.1	
	2011	5,902	3,566	2,336	39.6	5.65
	2012	5,813	3,499	2,313	39.8	-0.98
	2013	6,141	3,659	2,481	40.4	7.26
수원시	2010	510	306	205	40.1	
	2011	522	310	212	40.6	3.71
	2012	536	330	206	38.5	-2.92
	2013	542	333	209	38.6	1.55

자료 : 통계청, 2000~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2013년 지역별 고용조사,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통계청(2009-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경기도(2012) 2012 경기도 시군별 성인지 통계

### 3. 사회분야 주요 지표 검토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는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시의 2013년 사업에서도 자원봉사가 사회참여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자원봉사자 현황은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 3-26>를 토대로 경기도와 수원시의 자원봉사자 현황을 살펴봤을 때 절반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여성이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2012년 기준 58.4%의 자원봉사자가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수원시 역시 전체의 55.6%의 자원봉사자가 여성이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성비 역시 여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6〉 행정구역별 성별 자원봉사자 현황

행정 구역	연도	자원봉사자 규모		
		총계(명)	여성(명)	비율(%)
경기도	2009	1,018,089	570,760	56.1
	2010	1,215,954	686,980	56.5
	2011	1,517,720	879,808	58.0
	2012	1,743,563	1,020,583	58.5
수원시	2009	165,277	90,287	54.6
	2010	184,343	100,928	54.8
	2011	192,038	105,637	55.0
	2012	223,268	124,061	55.6

자료 : 수원시 내부자료

## 제4절 소결

수원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수원시 시정현황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일반현황을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원시는 2014년 현재 외국인 포함 120만의 인구를 가진 거대 기초자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0대 이상의 인구비중을 전국평균 및 경기도와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의 여성과 관련된 주요 조례, 2013년 주요 사업 성과, 2014년 주요 사업 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 개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수원시는 전형적인 성장하는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 역할은 보다 두드러지게 요구된다.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이며, 상대적으로 50대 이하의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수원시 여성인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성과 관련된 각종 조례와 사회참여에 관한 주요 사업 내용은 여타의 기초자치단체와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성에 대한 인식 또한 성평등적 관점보다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표개발을 통한 여성정책에 대한 현황파악과 근거마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개발의 분야는 성평등기본조례 제1조(목적)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4가지 영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기본조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나타나듯 여성의 참여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원시의 여성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나듯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지표가 부실하게 생산되고 있는 통계 또한 통계청

이나 경기도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2013년 사업 성과와 2014년 사업 계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주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지표를 설계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지표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또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 제4장

# 지표개발 사례분석

제1절 국내 지표개발 사례분석

제2절 해외 지표개발 사례분석





# 제4장 지표개발 사례분석

## 제1절 국내 지표개발 사례분석

### 1. 중앙정부 주요 지표개발 사례

#### 1) 국가 성평등지표

여성권한척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표적인 성 평등지표로 2004년부터 관리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국가경쟁력지수를 포함한 국제평가기관이 발표하는 국제평가지수 중 순위가 낮은 지수에 여성권한척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중점적으로 여성권한척도를 관리하기 위해 여성부를 주관부처로 지정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여성부 역시 여성권한척도 개선을 위해 2005년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UNDP 여성권한척도 제고 대책을 보고하고 2006년과 2007년 개최된 여성정책협조부서 회의에서 '여성권한척도 향상을 위한 부처별 추진방안'과 여성권한척도 향상방안'이 논의되었다. 이후 여성권한척도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인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통해 성평등지표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지표의 개발과 주기적인 제작성, 지표값 산출을 통한 성평등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지역사회 여성관련 지표개발 동향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6년과 1994년, 2006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여성과 관련된 사회통계와 지표를 개발하였다. 1986년

과 1994년에 개발된 사회통계와 지표들은 기존의 사회통계와 지표들을 검토·분석하여 현재 여성의 상태에 대한 파악이 목적이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여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발전계획의 수립에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이리저리 흩어져있던 여성 관련 통계자료를 정리해서 제시하자 여성문제 연구자나 정책담당자들도 연구와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기존 여성사회지표개발은 부족한 연구를 토대로 개발되었고 당시 가지고 있던 통계체제에서 성별분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존하여 개발된 여성사회지표들은 여성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2005년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주류화 개발전략 사업에서 개발한 양성평등지표는 기존의 지표들에 비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양성평등 지표는 대부분 사회지표로서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과 소득, 정치 및 사회참여, 건강, 복지, 문화, 폭력과 범죄 등 9개 부문의 양성평등 지표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양성평등 지수를 개발하여 측정하는 시도들 역시 있어왔다. 2004년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는 대전시 양성평등 지표 개발을 시행하여 개발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지표에 대한 개발 역시 실시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사회복지발전지표 개발과 동시에 여성관련 지표를 개발하였고, 제주도는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지표개발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지표개발 역시 실시한 바 있다. 2006년에는 서울시에서 GSI, 즉 성인지 지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후 활발한 후속 연구 끝에 올해 초 “2013 서울시 자치구 성 인지 통계”라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 3)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는 성별(분리)통계, 성 인지 통계, (가족)여성통계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서울시, 2013). 2011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1년 성 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 안내서”에 따르면 성 인지 통계는 협의와 광의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성 인지 통계는 “개별 차원의 통계에서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통계”로 광의의 성 인지 통계는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 제시된 통계”의 의미를 가지며 결국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성 인지 통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여성가족부·통계청, 2011).

성별분리통계 즉 성 인지통계는 남녀간 차이의 제시, 남녀 불평등한 상황의 점검, 양성평등한 상태로의 이정표 역할,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정책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1986년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가 최초의 성인지통계라고 할 수 있으며 1994년부터 매년 발간 중인 ‘여성통계연보’는 대표적인 성 인지 통계 간행물이다. 최근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성별분리통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1〉 중앙행정기관의 성별분리통계집 발간 현황

연도	발간물	소관 부처
1983년부터 매년	통계 위주 보고서 「여성과 취업」	고용노동부
1997년부터 매년	통계집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2000년부터 격년	「법무부 여성통계」	법무부
2000~2003	일부 통계 「여성과 공직」	안전행정부
2001	「여성보건복지 : 현상과 통계」	보건복지부
2002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03	「한국여성의 건강통계집」	보건복지부
2003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성 인지적 통계자료 생산 방안」	보건복지부
2005~2006	「여성가족통계연보」	여성가족부
2005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안전행정부
2005	「법무부 여성통계 체계 개편 연구」	법무부

자료 : 서울시(2013), 「2013 서울시 자치구 성 인지 통계」 인용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활발히 성별분리통계집을 펴내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기초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발간하며 성별분리통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발간이 되는 곳은 소수이고 대부분 지속적인 발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지방정부 주요 지표개발 사례

###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사회참여 지표

2006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시행된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었다. 정치, 경제, 자원봉사 및 단체 활동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 각 분야별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고 보육, 사회교육이 여성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4-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사회참여 지표 체계 개념도

정치 분야에서 10개 지표, 경제 분야에서 4개 지표, 자원봉사·단체 활동 분야에서 4개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보육과 사회교육 분야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를 단순한 통계가 아닌 정책의 효과성과 보육 시설, 직업교육 등 실질적인 여성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을 토대로 정치, 경제, 자원봉사·단체 활동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표 4-2〉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지표

구분	지표	비고
정치	성별선거인수	10개 지표
	성별투표율	
	성별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주요정당 고위 공직자수	
	공무원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여성공무원 현황	
	여성공무원 배치 현황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 대비 실적	
	여성 통·리장 현황	
	여성위원 위촉 및 활동 지원 현황	
경제	경제활동인구	4개 지표
	성·연령·분야별 취업자 수	
	노동조합 현황	
	맞벌이 및 비맞벌이 가구의 남녀 노동시간	
자원봉사 및 단체 활동	자원봉사자 현황	4개 지표
	자원봉사활동실적	
	고정 자원봉사 수요자와 자원봉사자의 연계실적	
	제주도 여성단체 현황	

자료 : 정영태 외(2006),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정치 분야에서는 ① 여성 리더십 훈련 등 교육의 필요성과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② 아직 잔존하고 있는 제주도의 가부장제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③ 공직 내 여성 관리자의 확대, ④ 여성 위원 확보를 위한 전문적 여성 발굴 등의 자원화와 같은 네 가지의 보완점이 마련되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① 경제 영역의 다양화 정착, ② 보육시설과 아동보육을 위한 시설의 탄력적인 운영, ③ 출산·육아 친화경영 도입 등 세 가지 보완점이 제시되었는데 이 중 경제 영역의 다양화 정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및 단체 활동 분야에서는 ① 여성의 자원봉사 및 단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② 자원 활동·단체의 전문화 필요, ③ 자원 활동·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결과 여성의 사회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성평등의 미비’와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었다. 출산을 할 경우 여성이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었고 그 결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돌봄의 공공화를 바탕으로 양육의 페러다임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양성평등을 이루는 사회분위기 역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2) 대전 여성사회지표 개발

대전여성사회지표 개발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여성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있으며 성인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와 국외의 여성사회지표의 정책반영 및 개발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비교가능성, 대표성, 정책화가능성, 생산가능성의 5가지 원칙을 도출하였다. 이 원칙을 적용하여 총 9개 부문에서 265개의 예비지표를 추출해낼 수 있었고 델파이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9개 기본영역과 28개 하위영역, 64개의 대전여성사회지표를 선정할 수 있었다.

〈표 4-3〉 대전여성사회지표

기본영역	하위영역	지표명
인구	인구구성	성별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성별 연령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출생	혼인상태별 인공임신 중절률(통합)
		출생성비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성별남아선호도
		성별 이상자녀수(성별 기대자녀수)
사망	성별 영아 사망률	
가족	태도와 행동	태도-여성도 가족생계 동등한 책임
		태도-남성도 가사육아 동등한 책임
		성별 남자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
		성별 본인 명의 재산-주택
		성별 가족보살피기 시간사용
		성별 노후 준비 방법
교육	교육기회	성별 연령별 평균 교육년수
		전공계열별 대학생 중 여학생 비율
		평생학습 참여자 여성비율
	교육여건 및 자원	대학교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고등학생의 성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교육의 결과	전공분야별 대졸 취업률의 남녀차이
성별 고졸대비 대졸 임금격차		
경제활동	경제활동기회	성별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25-34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실업률
	취업구조 근로조건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비
		성별 근로자의 일용직 비중
		성별근로자의 시간제 비중
소득과 소비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기본영역	하위영역	지표명
정치/ 사회참여	정치참여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비율
		지방의회위원 상임위 위원장 중 여성비율
	행정참여	지방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
		시 양성평등정책 전담조직 운영
		시 정책자문위원회 중 여성비율
	사회참여	주요언론 종사자 중 여성비율
건강	건강상태	성별 건강수명
		성별 개인의 건강상태평가
		성별 5대 암 수진율
	생식건강	성별 피임실천율
	사망 및 상병	성별 주요 만성 질환별 유병율
	보건의료이용	성별 입원율(의료기관 중별 입원율/전체 및 심혈관계 질환)
		성별 외래이용률(의료기관 중별 외래 이용률)
	복지전반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사회보험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의 성별차이
		성별 공적연금 수급자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빈곤가구주 남녀비율
	사회복지 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여성 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별 취업률
	문화창작 및 생산	성별 문화예술분야 졸업생의 해당분야 취업률
		문화산업종사자중 여성비중
문화산업종사자의 성별임금격차		
문화소비	성별 문화활동참가시간	
	성별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문화욕구 변화	
폭력과 범죄	폭력에 대한 두려움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별 연령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발생과 피해	연도별 강간범죄의 발생건수
		강간범죄의 신고율
		직장내 성희롱 성별 경험률과 신고건수
		강간범죄자의 처리결과
	가정폭력의 발생과 피해	성별 연령별 가정폭력 경험률
안전	성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료 : 박노동(2008), 「대전 여성 사회참여지표 개발」, 대전발전연구원

### 3. 주요 지표개발 동향 시사점

중앙정부에서는 여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개발의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통계생산에 있어 규모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소수이다. 여성에 대한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른 문제이다. 다만 사회참여의 한정지어 살펴볼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사회구성의 기초단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지표개발에 있어 한국여성개발원에서 2005년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주류화 개발전략 사업에서 개발한 양성평등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양성평등 지표는 대부분 사회지표로서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과 소득, 정치 및 사회참여, 건강, 복지, 문화, 폭력과 범죄 등 9개 부문의 양성평등 지표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치 및 사회참여와 경제활동과 소득 등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표개발의 분야설정에 있어 사례가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2008년 개발한 여성의 사회참여지표, 제주도가 개발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지표개발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주도는 정치, 경제, 자원봉사 및 단체활동 등 3개 분야에 걸쳐 18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총 9개 부문에서 265개의 예비지표를 추출해내었으며, 델파이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9개 기본영역과 28개 하위영역, 64개의 대전여성사회지표를 개발하였다. 다만 대전광역시의 영역은 사회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가 포함되어 개발된 지표의 규모가 크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첫째,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개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체로 사회참여를 별도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처럼 경제활동이 사회참여

를 위한 주요한 배경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목적에 적합한, 그리고 수행가능한 범위에서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차원이 지표개발 및 통계생산과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전광역시의 지표개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된 지표의 성격에 차이가 있으며, 지표개발시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지표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표개발 후속연구에 있어 예비지표를 추출한 이후 델파이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표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제2절 해외 지표개발 사례분석

### 1. 주요 국제 기구

#### 1) UN

UN은 최근 우리나라의 통계청과 함께 성 인지 통계 국제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Gender Statistics)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를 통해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녀불평등의 정확한 측정과 정책 활용 그리고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더불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22개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남녀평등 달성 및 여성권한 강화의 이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2010년부터 진행된 UN 글로벌 어젠다 국제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크게 4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성인지적 관점 통계의 통합으로 성 인지 통계에 대한 개요와 국가통계에서 성주류화를 위한 전략 개발에 대해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국 통계청이 직면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여성의 경력단절 및 일·가정 양립통계에 대한 것으로 각 국가의 여성 경제 활동 특성과 일·가정 양립실태를 보여주는 통계 및 생산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한 사례의 공유와 더불어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생활시간조사와 남녀생활 측정과 관련한 세션으로 생활시간통계 생산을 위한 모범사례와 생활시간의 국제 활동분류의 방법론적 발전을 성별분석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 세션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폭력의 측정에 대한 것으로 민감한 사항인 만큼 각국 통계청이 이에 대해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여성폭력 조사의 특성에 초점을 둔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발표로 이루어졌다.

UN은 1984년 「Compiling Social Indicators of the Situation, Improving Concepts and Methods for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Women」(1984)의 발간을 통해 처음 여성과 관련된 사회지표 및 통계자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계자료의 개발보다는 각 국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통계자료들의 개념 및 수집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1997년 여성사회지표 및 양성평등 통계와 관련하여 「Handbook for Producing National Statistical Reports on Women and Men」(1997)이 출간되었고 이 보고서는 건강과 육아, 인구정주와 환경, 일과 경제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위의 지표들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과 자료출처, 통계수집 및 분석, 그리고 다른 양식의 분류와 추가할 지표들, 문제점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표를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도표와 차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설명하고 있다(대전발전연구원, 2008). 2000년에 발간된 「The World's Women: Trends and Statistics」(2000)는 여성관련 통계자료의 대표적인 자료로 처음으로 지역별 비교분석과 국제 이주자와 관련된 지표가 수록되었다. 인구, 가족, 보건, 교육 및 정보통신, 노동, 인권과 정치참여 등 총 6개로 분류하여 지역(대륙 및 국가)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4〉 The world's Women 2000: Trends and Statistics의 관심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인구	총인구, 인구구성, 인구분포, 인구이동
가족	가족형성, 가족구성, 가족생활
보건	생존연수, 출생 및 사망, 상병
교육과 정보통신	교육기회, 교육여건 및 자원, 커뮤니케이션
노동	인력현황, 여성취업현황, 출산
인권과 정치참여	정치참여, 행정참여, 인권

자료 : United Nations(2000), 박노동(2008) 재인용

Gender Indicators(2003)는 UN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에서 2003년 발간한 보고서로 성인지 지표 분석틀이 포함되었다. 12가지 영역의 구분된 주요 관심분야(여성의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과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등)를 설정하고 이를 제도적 조치 및 재정적 조치로 구성하여 각각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성 인지 통계 개발: 실용안 내서(Developing Gender Statistics: Practical tool)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은 UN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세계은행연수원(World Bank Institute)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통계청 담당자에 대한 성 인지 통계 훈련 프로그램의 교안을 토대로 작성한 성 인지 통계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1984년부터 이어진 UN의 지표관련 연구들은 국가 간 비교의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형성을 위한 기본 목표에 충실해 왔으면 세부적인 분류에 힘써왔다. 하지만 최근 열린 UN 성 인지 통계 국제 세미나를 통해 정책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범사례 연구와 더불어 지금까지 축적해온 지표들의 활용 방안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EU

EU는 그 어떤 지역보다 여성과 남성의 지표개발 및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연구가 각 국가별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003년 출간된 「The Life of Women and Men in Europe : a statistical portrait data 1980-2000」(2003)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유럽에서 성별에 따라 삶에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통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보고서로 기본적으로 성별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지표방식의 형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성

기, 노동 및 가족변성기, 은퇴기로 생애주기를 나누어 관련 지표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표 4-5〉 The life of Women and man in Europe의 분류형태

대분류	소분류
형성기	인구학적 측면
	가족 환경
	교육
	생활방식
노동 및 가족 변성기	일과 가족생활의 융화
	고용패턴과 정책결정
	여성과 남성의 지속적인 교육
	여성과 남성의 수입
	여성과 남성의 빈곤의 위험성
	생활 방식
	여성과 남성의 건강 상태
은퇴기	인구학적 측면과 가족환경
	수입 수준
	생활 방식
	은퇴기 여성과 남성의 건강 상태

자료 : Europe Commission(2002), 박노동(2008) 재인용

또한 2004년 발간된 「The social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2004)이란 보고서를 통해 경제, 건강, 인구,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성 평등과 관련한 부분을 정책결정, 고용, 임금의 세 가지 부분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EU는 기본적으로 성별 분리통계에 대한 체계화와 더불어

여성만을 위한 지위지표보다는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체계 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U는 2010년 3월에 있었던 UN 북경행동강령 선언 15주년과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UN 컨벤션 30주년을 기념하며 양성평등을 위한 전략 2010-2015(Strateg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10-2015)라는 서약을 재정하였다. 동등한 경제적 독립과 동일한 노동 및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의사결정에서의 평등, 인간 존엄성과 여성 폭력의 종식, 그리고 대외활동에서의 양성평등 등 5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눠 양성평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 3) OECD

OECD는 인권의 중요 핵심 요소로 양성평등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OECD에서 2002년 발간된 「Society at a Glance」 (2002)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이 책은 사회배경과 사회상, 사회적 대응 등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접근하고 있다. 이 분류는 타 지표들이 생산될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책의 목적과 관련하여 생산되는데 OECD에서 분류하고 있는 사회지표는 정황지표, 자립도지표, 평등지표, 건강지표, 사회적결속력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지표는 양성평등과 사회적 평등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고용, 실업지표, 교육수준, 세금 면제율, 평균여명, 질병 등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반영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 4) 국제 기구 지표개발 동향 시사점

UN과 EU 그리고 OECD에 이르기까지 기구들은 각각에 맞는 여성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해 왔다. UN은 국가 간 비교의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형성을 위한 기본 목표에 충실해 왔으면 세부적인 분류에 힘쓰며 성인지 지



표 분석틀을 발간하는 등 실질적인 여성관련 지표의 수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더불어 최근 그동안 축적했던 지표들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각 국가별 모범사례 연구 및 공유를 통해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지표의 개발이 아닌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EU의 경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생애주기별로 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한다는 점이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보완책의 마련을 통해 양성평등의 평등을 달성하려는 타국가 및 기구에 비해 EU는 성별 유사성과 차이점을 생애주기별로 계량화함으로써 양성 모두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움직임 보였다. 그로 인해 EU의 지표개발은 여성을 위한 지위지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궁극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의 경우 양성평등을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며 그 중 평등지표를 통해 여성들의 삶에 대해 관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OECD는 매년 발간하는 양성평등 보고서를 통해 OECD가입 국가들 간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 기구들의 움직임들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 성별분리통계를 비롯한 여러 지표들을 여성을 위한 지표가 아닌 양성평등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여성을 사회적인 약자로 보고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보완책을 통해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따라서 여성 관련 지표는 성별분리통계 등과 같은 남성과 여성의 비교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여성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EU에서 진행했던 생애주기에 따른 지표 선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여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시계열에 따른 통계들이 축적된다면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보완점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속적인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통계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동안 축적해왔던 통계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각 기구들의 노력에 의해 그

동안 축적되어 왔던 통계들의 양도 무척 방대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외의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들에 대한 고민이 더해진다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주요 선진국 사례

### 1) 스웨덴

스웨덴은 전세계 국가 중 대표적인 성인지 통계 및 지표개발의 선진국이다. 정기적(3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Women and Men in Sweden. Facts and Figures」와 더불어 스웨덴의 통계청을 중심으로 성인지 통계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다. 1996년 발간한 「Engendering Statistics: A Tool for Change」는 영어와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여러 국가의 성인지 통계 훈련 교재로 활용되었다. 스웨덴 통계청의 간행물이 타 국가들의 주목을 받아 스웨덴 국제 개발 협력기구(SIDA)와 스웨덴 정부는 국제사회에 성인지 통계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고 2000년 아프리카 13개국, 아시아 8개국, 라틴 아메리카 4개국, 유럽 7개국이 참여한 통계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다. 더불어 계속해서 국가 정책의 성주류화에 따른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스웨덴 통계청에서 성인지 통계 생산과 관련된 자문과 가이드라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통계 지식이 부족한 정부 공무원과 공공 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직접적인 통계 생산 담당자들에게 성별 통계: 성분석의 필수 도구(Statics by Sex: A necessary tool for gender analysis)라는 핸드북을 통해 공무원들의 성인지 통계 생산과 활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웨덴 통계청의 대표적인 성인지 통계 서비스로 “Equal X”가 있다. 타 자료들과 달리 각 지역별로 성평등 순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로 스웨덴 통계청이 스웨덴 경제지역개발청 등과 함께 개발하였다. 2001년 1월 최초 공개되었으며 21개 주와 290개 군의 성평등 지수를 산출하고 그 점수에 따른 순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중등 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별 비율 등 총 13개의 표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 자녀 양육 및 가사, 정치, 노동조합, 사회 활동 참여 등 평소 스웨덴 정부의 성 평등 정책 목표에 따라 선정되었다. 이렇듯 스웨덴은 세세한 지역에 대한 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정책 및 지역사회의 참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2) 뉴질랜드

뉴질랜드 여성 지위 변화 지표(Indicators for Change: Tracking the progress of New Zealand Women)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분야에 대한 파악과 뉴질랜드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지표를 제공해주는 성별통계 분석 보고서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여성정책 추진계획(Action Plan for New Zealand Women)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뉴질랜드 여성 지위 변화 지표는 여성정책 추진계획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여성과 관련한 정책들이 어느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관련 세부지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성 복지와 여성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일과 생활 간의 균형이라는 뉴질랜드 여성정책 추진계획의 세 가지 목표에 대한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세 지표는 <표 4-6>과 같다.

〈표 4-6〉 뉴질랜드 여성 지위 변화 지표

여성정책 목표	지표
복지	건강 기대여명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 서비스 접근
	산업재해
	범죄피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의회 및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학력
	고등교육 참여
	미취업자
	시간당 중위 임금
	주당 중위 소득
일과 생활의 균형	일일평균 유급 및 무급 노동시간
	보육시설 접근

자료 : Ministry of Women's Affairs(2008),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9) 재인용

뉴질랜드의 특징은 뉴질랜드 여성 지위 변화 지표와 여성권한척도의 세부 지표들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권한과 지위에 대하여 연관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동반상승을 꾀할 수 있으며 성평등지표를 통해서 직접적인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의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뉴질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9) 성평등 정책과 성평등지표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로는 아일랜드를 꼽을 수 있다. 아일랜드 정부에서 2007년부터 추진 중인 “국가 여성 전략 2007-2016”의 경우 여성의 사회 및 경제적 기회의 평등 보장을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관련한 지표로 “여성 취업률”을 제시하고 있다(민무숙 외, 2008).

### 3) 영국

2006년 통합 평등법이 제정되고 법에 따른 성평등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영국공공기관들의 성인지 통계를 포함한 각종 통계 및 정보 수집과 활용과 관련한 필요와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영국 기회균등위원회(EOC)는 2007년 “양성평등정보의 수집과 활용: 영국 공공기관을 위한 안내서(Gathering and using information on gender equality: Guidance for GB public authorities)”을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 내 성별 분리를 포함한 성평등과 관련한 성인지 통계를 교육하고자 하였다. 이 안내서에는 9단계에 걸쳐 영국의 공공기관이 성별 분리 통계를 포함한 양적, 질적인 형태의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표 4-7> 참조).

<표 4-7> 양성평등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단계별 주요 내용

구분	단계명	주요 내용
1단계	내부자료 및 지역 정보 검토	관련 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성별 자료 파악
2단계	성별 분리	성별 미분리 내부자료 및 지역 정보의 성별 분리
3단계	전국 단위 정보 검토	업무 관련 전국 단위 자료 검토
4단계	자료 격차 파악	기존 자료 이외에 부족한 자료 파악
5단계	기존 자료 평가 및 수집 자료 결정	기존 자료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 추가 수집 자료 결정
6단계	정보 수집	모니터링 양식, 서베이, 인터뷰, 표본 및 포커스 집단 조사, 사용자 패널, 관찰 등을 통한 자료 수집
7단계	분석	정책과 서비스, 고용, 대표성 및 의사결정에서의 성별 불평등 확인
8단계	해석	성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추론 해석과 관련된 자문 실시
9단계	정보 활용	양성평등계획 목표 설정, 성별 영향평가 수행, 양성평등계획 성과 지표 개발 등

자료 : Gathering and using information on gender equality: Guidance for GB public authorities

더불어 양성평등정보가 성별 통계를 포함한 단순한 성별 분리 정보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시간과 전일제 등과 같은 고용형태, 공공기관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보살핌 노동 등과 같은 심층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남녀가 처한 현실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야 각각의 성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보들도 의미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여성부는 지금까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정책 목표를 두었다. 경제적인 기회의 증진은 물론이고 정부 및 유럽연합, UN이 연계하여 평등에 힘써왔으며 사회적으로 여성의 참여 장벽을 낮추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을 개발하고 하였다. 이를 위해 발간된 간행물이 바로 「Key indicators of women's position in Britain」이다.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여성의 지위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측정하고자 하는 정부와 관련기관이 힘쓰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 간행물은 여성들이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도록 공적인 논쟁과 정책형성을 위한 자료를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지위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시계열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4) 주요 선진국 지표개발 동향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스웨덴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은 각 국가마다 여성 정책과 지표개발에 있어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Equal X”를 통해 일반적인 여성의 삶과 그 질의 향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성평등지수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별로 여성의 평등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의 경우 여성권한척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공식적인 성평등 지표의 하나로 비공식적인 여성권한척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이 활용된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국제기구들의 지표개

발 동향 시사점에서 밝혔듯이 현재 성 인지 통계부터 양성평등지표까지 여성과 관련된 그리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지표들은 너무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표들을 양성평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관리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양성평등의 실현에 있어서 국가 수준에서 할 일과 더 큰 수준에서 할 일 모두를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크게는 EU, 나아가서는 UN에 이르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 성평등지수의 개선이 시급한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는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 내부에서의 노력과 함께 국제적인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제5장

# 지표개발 주요 제언

제1절 지표개발의 전제조건

제2절 여성 사회참여 지표개발 분야 제언



# 제5장 지표개발 주요 제언

## 제1절 지표개발의 전제조건

### 1. 사회참여 지표의 성격 규정과 목표

캐나다 국제개발단(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은 성별 민감 척도에 관한 연구(Guide to Gender-Sensitive Indicators)에서 지표를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들을 하나의 방향 혹은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척도로 설명하고 있다(CIDA, 1997: 5). 하지만 현재 사회의 체계에서 특정한 상황들에 대한 단순한 측정(measure)에 머물지는 않는다. 지표를 토대로 평가하고,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표는 본질적으로 가치지향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반면 Biderman(1978)는 사회지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의 여러 조건을 제시해주는 계량적 자료로 지칭했으며, Humberger(1974)는 기초육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즉 삶의 질과 사회복지의 향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Bauer(1996)는 특히 사회지표(Social Indicator)에 대하여 특정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효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통계자료들(Statistical series)과 여타 형태의 사실 혹은 증거(evidence)들로 정의한다. 즉 지표는 현재를 보여주는 척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기능은 현재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회정책의 평가와 더불어 미래에 어떤 부분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지표의 개념은 명목과 실체의 2가지로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명목적 관점에서의 지표는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측정하여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계량적 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적 관점의 지표는 현재 상태를 측정하고, 미래의 방향성이 어떤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사회지표는 현재의 사회 상태나 향후 변동 추세에 대해 예측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의 지침 역시 제시해준다. 또한, 다가올 사회문제에 대한 경보장치 역할을 하며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 성취는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더불어 미래의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 제고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지표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국가정책의 수립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지표 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지표 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의 계속되는 분화와 관심사의 변화, 사회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 지표를 개발하고 지금의 상태에 대해 측정하여 반영하는 것은 정책의 세분화와 심층적인 정책의 개발에 필수적이다. 더불어 지표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삶의 조건들을 특정한 사회 구성원 및 집단에 따라 측정할 수 있고, 둘째, 종합적으로 특정 사회나 공동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사회 변화에 대한 예측이 사회의 상황을 측정함으로써 가능해지고, 넷째, 사회단위가 아닌 특정 정책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김승원 외, 2005).

〈표 5-1〉 사회지표의 기능

구분	기능	세부분류
Morser (2003)	사회여건의 상태와 변동에 대한 관찰과 현재 또는 향후 파생될 문제에 대한 파악, 더불어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전달	사회정보기능 사회보고기능 사회변화측정기능
UNESCO	사회의 상태와 변동의 추세를 기술하며, 지표간 관계의 이해를 통해 정책결정자에게 사회변동을 추적 관리 가능	기술적 기능 사회적 연계 기능 분석도구로서의 기능
Land & Spielman (2004)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회 조건의 변화를 측정, 사회적 조건과 사회생활 전달	사회정책 기능 사회변동적 기능 사회보고적 기능
종합적 관점	현재의 사회상태와 변동추세에 대한 판단 장래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예측의 지침 사회문제의 사전 경보장치 역할 사회 각 분야의 목적설정과 성취 평가 지침 사회적 인과관계 해명과 문제의식제고 도구	

자료 : 박노동(2008) 재인용

이를 토대로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다양한 지역사회의 영역을 포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성차에 따른 상태를 파악하는 정보 및 보고기능과 향후 변동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사회변화 측정기능을 가져야 한다(Morser, 2003). 둘째, 사회참여 지표는 국가단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시적 접근보다는 지역사회 여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따라서 실질성과 현저성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성평등을 위한 구체적 사회정책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Land & Spielman, 2004). 넷째, 사회참여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접근하되 상대적 형평, 즉 여성과 남성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에 있어 여성에 대한 인식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활용이 보다 나은 정책을 산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체’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 2.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개발 설계 기준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개발을 위해 2장의 이론적 검토내용과 3장 수원시 현황 분석, 그리고 4장의 지표개발 사례분석의 내용, 그리고 사회지표의 특징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표개발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언하건데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한 지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토대로 설계 기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적 등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건데 여성의 사회참여는 양성평등을 달성하여 사회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인구 120만이 넘는 대규모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역시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여성의 적극적인 지역사회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지역사회에서 여성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전통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여성과 남성에 대한 분리통계를 통한 성차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전략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성별 분리통계의 축적이 시작되었으며 여성사회지표는 목적과 내용에 따라 ‘여성지위지표’와 ‘양성평등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 ‘여성지위지표’는 여성과 남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비교를 통해 현재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과 지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남녀비교가 아닌 지표들도 포함될 수 있는데 여성이 불평등한 삶을 사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원인에 대한 정보들이

이에 해당된다. ‘양성평등지표’는 남성과 여성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불평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성지위지표’와는 달리 결과를 통해 여성이 얼마나 불평등을 당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배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평등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획득할 때 그 의미가 부각된다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최소한의 지표로 한정해 불평등의 현상을 보여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유경, 2006).

〈표 5-2〉 여성지위지표와 양성평등지표 비교

	여성지위지표	양성평등지표
변수의 특성	원인과 현상	결과적 측면
변수의 수	다양한 변수 포함	변수의 수 한정적
분석 양식	남성과 여성의 비교와 여성 내부 집단 간 비교 병행	남녀비교에 집중
정책 활용성	상대적으로 원인의 분석에 효과적	남녀비교에 집중
전형적인 지표	여성의 모성건강, 성폭력, 이혼율 등	남녀임금수준, 남녀국회의원비율 등

자료 : 문유경(2006) 인용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다르게 지역사회는 각각의 다른 특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적절한 참여를 통한 근본적 수준의 정책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역할수행 차원에서 분야 선정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정책의 입안 및 결정에서도 주민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고 이것은 행정의 능률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는 주민들의 지식과 역량을 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전제해야 한다.

넷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지표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환경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개인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삶 속에서 지역 주민은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참여라는 행위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지역 내 빈곤이나 인종의 이질성, 인구의 이동성 등의 지역 환경이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주민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erkins 외, 1990; Sampson & Groves, 1989).

다섯째,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한 매커니즘은 Rowe & Kahn (1998)이 지적한 것과 같이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적 활동’의 지속 의지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적 이득, 즉 여성의 이해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동기가 사회참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박병진, 2007)을 고려하여 지표개발 분야에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호혜에 기초한 관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확대되기 위한 방안을 지표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여성 사회참여 지표개발 분야 제언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개발의 분야는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4가지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개발 분야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와 지표개발에 대한 기본 방향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4개 분야로 선정하되 인구 구성에 따른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인구사회학 분야를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지표의 구성항목은 지역사회와 관계된 내용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지위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는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여 성별분리통계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환경, 제도, 정책(사업)을 고려하여 예비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지표개발 및 운용에 있어 예산과 인력 투입이 다수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통계청 등을 비롯한 각종 통계생산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전국, 경기도, 수원시, 유사한 조건을 가졌거나 경쟁이 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계하고자 한다.

### 1. 인구영역

인구와 관련된 현상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여성과 남성 개인의 생활기반이 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관한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평균수명 증가 추세나 저출산현상이 이변없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는 여성과 남성의 삶에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특정 성별에 편중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고령인구 중 여성이 많은 것,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삶에 대한 출산의 영향력이 큰 것 등이 그러하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노령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성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1/4 가량이 독거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영역을 지표개발 분야로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개발과 운용을 통해 유의미한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별 인구구성의 추세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설계에 있어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구영역은 지표개발 분야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구영역에 대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구영역을 중요한 지표개발 분야로 제언하고자 한다.

인구영역에 있어 예비지표로 제시할 수 있는 세부지표는 인구구성, 인구추세, 인구동태(출생, 사망, 이동 등)이다. 앞서 수원시 인구구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와 같이 수원시 지역사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인구영역에 해당하는 제시할 수 있는 예비지표는 다음 <표 5-3>과 같다.

<표 5-3> 인구영역 예비지표 제언

no	세부영역	예비지표(제언)
1	인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인구구성</li> <li>•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노령/생산가능인구)</li> <li>• 성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li> </ul>
2	인구동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출생, 사망, 자연증가 인구 현황</li> <li>• 부모 연령대별 출산율(또는 산모 연령대 분포)</li> <li>• 연령대별 사망률</li> </ul>
3	추세 및 기관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년도 기준 인구구성 및 동태 추세</li> <li>• 전국, 경기도, 수원시, 유사(경쟁) 기초자치단체 비교</li> </ul>

## 2. 정치영역

지역사회에서 정치영역의 지표는 지방자치와 행정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성공무원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반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기반조성 실태를 측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행정참여가 세부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만 단순하게 공무원의 성비에 대한 분석은 이미 채용제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되,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확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지표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참여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차를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수원시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비 수준을 살펴볼 때 기본적인 수준의 지표부터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형태는 직접적으로 투표나 전통적 유형의 기타 제도권 정치의 참여, 현재의 체제에 반대하는 저항활동, 노조운동, 평화운동 등 비제도권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개인적인 영향력의 행사, 여성단체를 통한 참여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Randall, 2000: 78-97).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직접적인 의미로 선거와 의회, 정당, 행정부내의 참여를 들 수 있으며 간접적인 의미로 여성단체를 통한 참여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성단체를 통한 참여는 사회분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치분야에 있어 정당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있어 좀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다음 <표 5-4>와 같은 세부영역 및 예비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5-4> 정치영역 예비지표 제언

no	세부영역	예비지표(제언)
1	행정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직급별, 수행업무별 성별 공무원 현황</li> <li>• 수원시 신규임용 공무원 성별 현황</li> <li>• 수원시 양성평등 또는 여성관련 부서 현황</li> <li>• 수원시 위원회 당연직 및 위촉직 여성 현황</li> </ul>
2	정치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및 지방의회 후보자 및 당선자 성별 현황</li> <li>• 수원 지방의회 상임위 유형별 성별 위원 현황 및 위원장 성별 현황</li> <li>• 성별 정치관심도 및 정당 지지도(패널)</li> </ul>
3	추세 및 기관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년도 기준 행정 및 정치참여 추세</li> <li>• 전국, 경기도, 수원시, 유사(경쟁) 기초자치단체 비교</li> </ul>

### 3. 경제영역

경제부문의 지표는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입여부와 영향력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전국평균에 비해 1~2% 가량 낮는데 원인이 자발적 실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원시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영역은 이미 기존의 수원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집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표개발은 경제주체로서의 여성과 평등한 고용기회 및 대우의 동등성 등에 대한 실태를 측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영역은 정치영역과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전제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리하건데 경제영역의 사회참여 지표개발은 경제영역에 해당하는 기본조사로서 경제활동, 취업 및 근로활동, 경영활동으로 세부영역을 구분하고 비경제활동에 대한 원인 분석, 여성취업에 대한 현황 등을 예비지표로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차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조건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영역에 대한 예비지표 제언은 <표 5-5>와 같다. 다만 최근 여성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원시에서도 여성의 기업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세부영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보완하고자 한다.

〈표 5-5〉 경제영역 예비지표 제언

no	세부영역	예비지표(제언)
1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경제활동/비경제활동 인구 규모</li> <li>• 비경제활동인구의 원인(패널)</li> </ul>
2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및 직급별 인건비 수준 격차</li> <li>• 성별 평균 근속년수</li> <li>• 성별 근로계약유형(정규직/비정규직 등)</li> </ul>
3	취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취업인구 규모 및 현황(취업유형 등)</li> <li>• 여성의 구직활동에 있어 문제점(패널)</li> <li>• 여성의 근로활동 중지 원인과 재취업시 장애요인(패널)</li> </ul>
4	기업활동 (여성기업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인 주요 진출분야, 매출액 규모 등 현황</li> </ul>
5	추세 및 기관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년도 기준 경제활동, 근로조건, 취업활동, 기업활동 추세</li> <li>• 전국, 경기도, 수원시, 유사(경쟁) 기초자치단체 비교</li> </ul>

## 4. 사회영역

사회영역의 예비지표는 양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의 구축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등에 대한 실태를 측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만 용어사용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시 사회영역의 지표는 정치 및 경제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비정치·비경제 부문에서의 사회참여 활동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다만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사회영역에 포함하여 제시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하되 추후 논의를 통해 포함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이는 이미 복지에 대한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주체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은 시민단체 활동과 시민운동, 자원봉사 등이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 <표 5-6>과 같이 예비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5-6〉 사회영역 예비지표 제언

no	세부영역	예비지표(제언)
1	여성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등록 여성단체 유형, 구성원, 재정규모 등 현황 수원시 등록 여성단체의 상근직의 여성비율</li> </ul>
2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등록 자원봉사자의 연령대별 여성비율</li> <li>• 수원시 등록 자원봉사자의 봉사기간</li> </ul>
3	추세 및 기관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년도 기준 여성단체, 자원봉사</li> <li>• 전국, 경기도, 수원시, 유사(경쟁) 기초자치단체 비교</li> </ul>

## 5. 문화영역

문화영역의 경우 기존의 사회참여에 있어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이다.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사회참여의 분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화활동에 있어 여성의 의미가 그동안 크게 부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영역에 대한 「문화지표체계 개선: 2005 문화지표(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과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연구(보건사회연구원, 2004)」를 토대로 문화유산, 문화창작 및 생산, 문화소비, 사회문화활동, 문화의식으로 구분을 시도한 박노동(2008)의 「대전여성사회참여지표 개발 연구」를 토대로 다음 <표 5-7>과 같은 예비지표를 제언하고자 한다.

〈표 5-7〉 문화영역 예비지표 제언

no	세부영역	예비지표(제언)
1	사회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문화단체 참가율</li> <li>• 문화예술기금 수혜자의 성별 비중</li> </ul>
2	문화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활동참가 비용</li> <li>• 성별 문화활동참가 시간</li> <li>• 성별 예술행사관람률</li> <li>• 성별 연령대별 TV시청시간</li> <li>• 성별 (지역)문화시설이용률</li> </ul>
3	추세 및 기관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년도 기준 여성단체, 자원봉사</li> <li>• 전국, 경기도, 수원시, 유사(경쟁) 기초자치단체 비교</li> </ul>





## 제6장

## 결론

제1절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 제6장 결론

### 제1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탐색적 기초성격의 연구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하는 등의 실질적 성과물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되지 못한다. 다만 현재 외국인 포함 120만의 거대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여전히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성장하는 도시이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연령대별 인구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수원시라는 특징적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앙정부의 종속된 형태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로 새로운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여성 사회참여의 지표를 개발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을 검토하였다는 것이다. 즉 지표개발에 있어 지표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지표개발 및 운용의 목적으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정리함으로써 지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표개발을 위한 모형을 설계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역할 고려, 성별 분리통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참여의 주체로서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 지역사회 환경 및 제도의 중요성, 상호호혜성에 기초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표개발 및 운용 방안에 대한 개략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참여에 대한 지표개발에 있어 분야를 인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5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인구영역의 지표는 정책설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표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별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별 지표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연구내

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분야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후속연구에서 구체적 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개발을 위해 5개 영역의 예비지표를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시될 수 있으나 이는 후속연구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적실한 지표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표개발연구가 상대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초연구와 실제 개발연구를 구분하였으나 예비지표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가시적 성과물이 도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의 검토과정이 용이하지 못하였으며, 검토한 기존의 사례들 또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지표개발이었다는 점에서 사례에 대한 적합성 측면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의 연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회참여 지표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지표의 성격을 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다만 연구의 한계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추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실제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예비지표에 대한 교수 및 공무원 중심의 전문가 검토회의와 AHP와 같은 계량적 의견조사법을 통해 실제적인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표운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적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단행본

- 박용순(2006),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Bauer, M.(1996), 'The narrative interview: comments on a technique of qualitative data collection', *Papers in Social Research Methods – Qualitative Series*, Vol. 1.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Methodology Institute.
- Castenmiller, P.(1989), Convergentie of divergentie: Stedelijkheid, landelijkheid (Cahier / Sociaal en Cultureel Planbureau), Cultureel Planbureau EN Sociaal.
- CIDA(1997), Guide to gender-sensitive indicators.
- EOC(2007), Gathering and using information on gender equality: Guidance for GB public authorities.
- EU(2002), The Life of Women and Men in Europe: a statistical portrait data 1980–2000.
- EU(2004), The social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
- OECD(2002), Society at a Glance.
- R. Putnam(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we, J.W. and R.L. Kahn(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Random House.
- Russell J. Dalton(2008), The good citizen: How a younger generation is reshaping American politics, SAGE.
- Sirianni, C. and L. Friedland(2001), Civic innovation in America: Community empowerment, public policy, and the movement

- for civic renewal, Univ of California Press.
- UN(1984), Compiling Social Indicators of the Situation, Improving Concepts and Methods for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Women.
- UN(1997), Handbook for Producing National Statistical Reports on Women and Men.
- UN(2000), The World's Women: Trends and Stastics.
- UNESCAP(2003), Gender Indicators.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Verba, Sidney, Norman Nie and Kim Jae-on(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학술지/학위논문

- 강대선, 류기형(200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27-53.
- 공정자(1997), 한국여성의 사회참여: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인하교육연구, 3: 89-117.
- 곽현근(2007),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59-87.
- 김민정(1997), 사회과학전공여성의 사회참여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치학전공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1(4): 313-335.
- 류기형(2004),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5: 45-75.
- 문옥표(1995), 일본의 사회교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역공동체와 주부



- 의 역할, 한국문화인류학, 28(1): 101-137.
- 박병진(2007),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65-105.
- 신유리, 김은경(2011), 사회참여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인식연구: Q 방법론의 활용, 여성학연구, 21(3): 101-140.
- 유정숙(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8: 103-137.
- 윤경아, 남미애(2003), 서구관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새올법학, 6: 1-69.
- 이금룡(2002), 한국노인의 사회활동,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5(2): 1-22.
- 이기숙, 박해숙(2007),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변천 소고: 부산시 사상구를 대상으로, 여성연구논집, 18: 53-90.
- 이선미(2004), 여성의 시민참여와 사회자본: 자원결사체 참여의 성별분리. 한국여성학, 20(1): 163-193.
- 이선향(2005),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공공성(公共性)의 문제: 지방정치의 부상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담론201*, 7(2): 109-134.
- 주삼식(2000), 현대 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5(2): 115-132.
- Bassuk SS, Glass TA, Berkman LF(1999), Social disengagement and incident cognitive decline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person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1: 165-173.
- Bryson, L. and M. Mowbray(2005), More spray on solution: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evidence based policy,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0(1): 91-106.
- Chavis, D. M. & A. Wandersman(1990),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 Psychology, 18: 55–82.
- Dalton, Russell J.(2008),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tudies*, 56(1): 76–98.
- Docherty, I., Goodad, R., and R. Paddison(2000), Civic culture, community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contrasting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38(12): 2225–2250.
- Gillespie, Judith; Lazarus, Stuart(1976), Teaching Political Participation Skills, *Social Education*, 40(6): 373–378.
- Lahiri–Dutt, K.(2004), ‘I plan, you participate’: A southern view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urban Australia,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9(1): 13–27.
- Lepofsky, Jonathan and James C Fraser(2003), Building community citizens: Claiming the right to place–making in the city, *Urban Studies*, 40(1): 127–142.
- Omher, M., and E. Beck(2006), Citizen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Organizations in Poor Communities and its Relationship to Neighborhood and Organizational Collective Efficac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3(1): 179–202.
- Palmore, E. B.(1981a), More on Palmore’s Facts on Aging Quiz, *Gerontologist*, 21: 115 - 116.
- \_\_\_\_\_ (1981b), The Facts on Aging Quiz: part two, *Gerontologist*, 17: 315 - 437.
- Sampson, Robert J. and W. Byron Groves(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Disorganization Theor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4): 774–802.
- Siddiquee, A. and C. Kagan(2006). The Internet, Empowerment, and Identity: An Exploration of Participation by Refugee Women in a Community Internet Project(CIP) in the United

Kingdom(UK),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6: 189-206.

## ■ 보고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2), 2012 경기도 성 인지 통계, 경기도.
- 김창연(2009), 해외 성인지표 사례 분석 뉴질랜드의 「변화를 위한 지표 Indicators for Change」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민무숙, 이수연, 박성정, 김혜영, 김은경(2008), 신정부의 여성정책 비전과 전략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노동(2008), 대전여성사회참여지표 개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박정은, 원영애, 최은영(1994), 초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200-16).
- 보건사회연구원(2004),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연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3), 서울시 자치구 성 인지 통계, 서울특별시.
- 정영태, 임소진(2006),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주재선, 김원홍, 송치선, 박건표(2013), 2013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2013-39).
- 주재선, 박건표(2011), 2011 한국의 성 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 송치선, 동제연(2013), 2013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연구보고(2013-40).
- 주재선, 송치선, 박건표(2013), 2013 한국의 성 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현섭(1999), 사회참여 체험학습의 원리와 기본개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 운동협의회.
- 통계청(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가족부.
- \_\_\_\_\_(201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가족부.
- \_\_\_\_\_(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가족부.

\_\_\_\_\_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가족부.

\_\_\_\_\_ (2013),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_\_\_\_\_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가족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 문화지표체계 개선: 2005 문화지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국가 비승인 통계의 성별 분리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개발원(1999),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문화관광부.

## ■ 홈페이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https://www.gfwri.kr>)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https://gsis.kwdi.re.kr>)

수원 통계연보DB (<http://stat.suwon.go.kr>)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http://www.elis.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www.kwdi.re.kr](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역 성 인지 통계DB 사업 배경 및 목적(<http://gsis2.kwdi.re.kr>)

영문 요약(Abstract)



# Abstract

At the moment the 6th civil election started, it needs to deliberate to determine whether society participation is active in Korean regions. Reflection is required if democracy is just suggested by commitments through civil participation for election period,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society.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parts, even if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have been improved a lot. In this study,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is recognized as a solution to solve problems in the community, To solve social issues in a large city, Suwon with a huge population of 1.2 million, index development is needed to encourage futher participation in society, which motivated this stud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background of the research,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s of the study. Tocque Bill pointed out that the successful Democracy of the United States had not been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administrative areas but originated traditionally the fact that participation had been noted as a premise to adjust self-interest. To achieve women's equality in a similar context in the present study, community participation is required to recognize them as standing subjects.

In chapter 2, first, the meaning of society participation was tried to be reviewed through the concept of community participation, participation and mechanisms, and the classificat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 Through this, the concept of community participation, mechanisms of adjusting the interests, standards to distinguish community participation were reviewed. Second, to explain women's soci-

ety participation in Suwon previous cases were reviewe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ocial participation, its effect, and major types were reviewed, Third, women's participation was tried to be discussed in society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discussion.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While explaining the background of women's participation through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explanation expanded to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fields. In addition, we confirmed dur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indicators that the key aspects of women's policy should be designed aiming at gender equality, Based on it the meaning of women's social participation in Suwon was discussed.

In chapter 3, the features of society which were targets for society participation were tried to be checked. To this end, general contents were analyzed through present status analysis. Through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 elderly population in Suwon relatively low but the portion of women in it showed the reversed result, higher. Next, main regulations with the key word, 'society participation and women in Suwon' and 2013 main business plans and 2014 business plans, and elected sixth period commitments were reviewed. As a result, in the regulations, etc. the discussion of social participation was pointed out frequently.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for women was strong to recognize the object of protection rather than considering the subject of social participation. In addition,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dex of women's society participation provided by Suwon, statistical production and management were not enough. For specific policy design, many parts shall be supplemented.

In chapter 4, we analyze the precedent cases in order to develop



index. With domestic cases, National gender equality indicators in the central government were reviewed, Local community women-related index development trend and gender separation statistics were reviewed. In case of local governments, The index development cases of the local govern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Daejeon were referred. For overseas index development cases, international indicators and each country index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ir index largely aimed at gender equality, In the course, efforts were put to social participation. Specifically, through gender separation statistics, life cycle management by statistics, etc. effort to reflect to policy in omnidirectional way was found.

In chapter 5, we examine the conditions which shall be precedent before developing indicators of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In other words, the features of index development were suggested by organizing functions to carry out. In the level of index model design, women's roles, gender separation statistics, subjects to participate in society who are not targets for protection, local community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system, interest adjustment to expand social capital based on mutual benefits, etc. were suggested. Based on them, brief frame for index development and management methods was suggested. Finally, the areas of index development for social participation were suggested in five categories such as populatio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Preliminary index were suggested.

In chapter 6, the issue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On the other hand, the limitations of study were explained. In the following study plans, expert opinion was researched to develop more specific and appropriate index.



## 수원시 여성 사회참여 지표 기초 연구

---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4년 12월 15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

비매품 ISBN 979-11-85686-18-9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443-810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Tel : 031-220-8001 / Fax : 031-220-8000  
www.suwon\_re.kr

비매품

